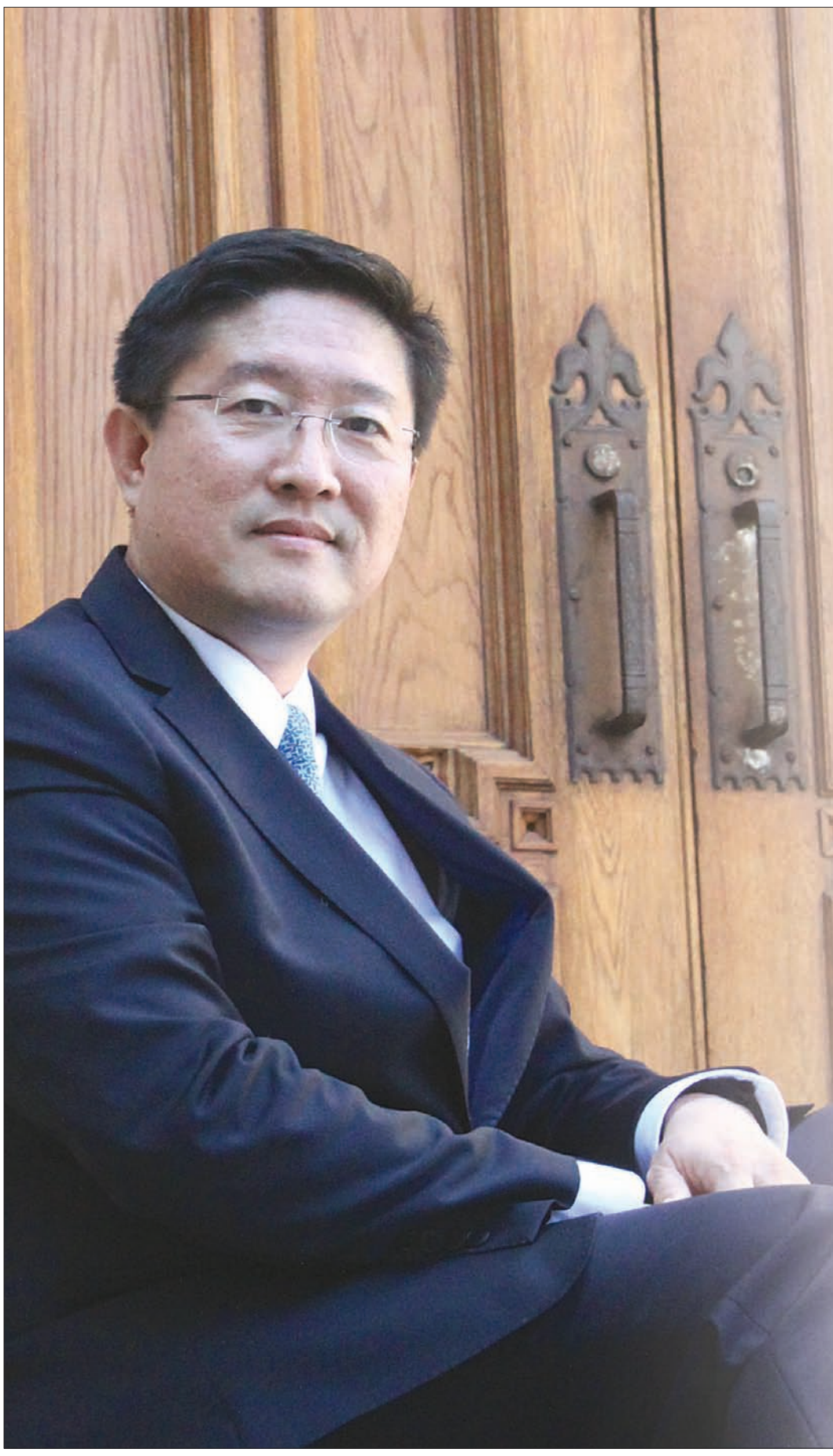
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March 2, 2017 Vol. 568



이민목회가 원래 이런 거예요

〈오늘도 희망이다 4〉 갈보리믿음교회 강진웅 목사

여기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다. 성인 회중 160명에 자녀 회중 100명이다. 보통 한인교회의 세대 분포와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일단 표면만 살펴보아도 1세 성인 회중을 맡은 목회자는 담임을 포함해서 2명인데 2세 자녀 회중을 맡은 교육부 EM 목회자는 4명이다. 260명 규모 교회에 목회자가 6명이란 사실에 한 번 놀라고 EM 목회자가 더 많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란다. 그리고 KM에서 사용하는 재정보다 EM에서 사용하는 재정이 더 많다는 사실까지 알면 더 말이 필요 없다.

대학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던 청년 강진웅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석사 학위를 포기하고 신학교에 곧장 입학했고 미국으로 유학 오면서 이민목회의 길에 들어섰다. 나성영락교회 대학부를 맡던 당시, 청년 30명에서 300명으로 부흥하는 경험을 했다. 밑도 끝도 없이 사랑을 부어대면 청년들은 반드시 반응한다는 것이 그의 부흥 경험담의 핵심이다.

이쯤 되면 이제 잘 나갈 만하다. 학력도 좋고, 설교도 잘 하고, 교회도 성장 시켜봤다. 당연인 것처럼 LA의 한 교회에서 담임 청빙이 들어왔다. 교회 자산은 수백만 달러에 달했지만 젊은 층이 거의 없는 교회였다. 청년 300명을 놓고 설교하다가 노인 10명 앞에서 설교하려니 맥이 빠졌다.

"아! 내가 나쁜 목사였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해 보였다. 그들을 먼저 말씀으로 일으켜 세웠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자고 도전했다. 그렇게 1세대들과 '소통'하면서 마구마구 투자했다. 다시 교회가 잘 성장했다. 그러나 이런 성공 스토리로 끝이 아니었다.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큰 갈등에 부딪혔다. 맞서 싸울 것이냐를 놓고 기도했지만, 주님 뜻이 아니었다. 성도들에게 "저는 사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 발표하고 몸만 달랑 나왔다. 목사가 밀린 사례비를 포함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오자 성도들은 수백만 달러 건물을 포기하고 따라 나왔다.

한순간에 개척교회 목사와 성도가 됐다. 첫째 주는 성도가 운영하는 상가에서, 둘째 주는 공원에서 예배드렸다. 셋째 주에 비로소 한 창고에 들어갔다. 화장실에 없어서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예배드려야 했다. 페인트칠부터 내부공사까지 모두 성도들이 나섰다. 편안한 의자, 빵빵한 스피커와 함께 예배드리다 창고 신세가 되니 정말 "기뻤다." 원래 이런 게 이민목회였다.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새 길을 여셔서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다.

강 목사의 자녀 2명으로 시작된 교육부는 현재 100명을 넘어섰다. 강 목사 혼자 한 일이 아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헌신한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쏟아붓는다. 그만큼 1세들은 누릴 것 못 누리고 즐길 것 못 즐기지만, 교회가 건물만 남는 빈 공간이 아니라 미국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는 꿈을 오늘도 꾼다. 이쯤 되면 개척교회 이민목회도 할 만하지 아니한가?

글 · 사진 김준형 기자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월~금:8am~6pm, 토: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323.734.4881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우대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2017년 세계기도일

'차별 없는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

세계기도일 예배 는 전 세계180여개국에서 한날 한시에 같은 기도제목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올해 기도국가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여성연합회에서 작성한 예배문으로 3월 첫주 전 세계가 함께 드리는
연합예배를 통해 필리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땅에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의 나팔이 울리기를 기도합니다.
필리핀를 직접 밟아 보지 못하지만 예배와 기도로 올 한해 필리핀를 마음에 품고 선교하게 됩니다.

남가주지부 모임

■일시 : 3월 4일(첫 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 동양선교교회
■문의 : Tel. 714)398-7471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최순자 부회장 유화진, 조진숙, 장영란, 김민선

GIFT 상담치유연구원과 남가주사랑의교회 가정사역개발원이 함께 전인치유 세미나를 열었다.

GIFT 새사람 전인치유 세미나 개최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기"라는 주제로 제7차 새사람 전인치유 세미나가 지난 2월 23일부터 사흘간 얼바인 윈댐호텔에서 개최됐다.

GIFT 상담치유연구원과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담임목사) 가정사역개발원 공동 주최로 6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세미나 강사로는 새사람 전인치유 세미나를 직접 기획한 전달훈 박사와 리디아 전 박사가 섬겼다.

전달훈 박사는 현직 전문의(조셉메디컬 그룹 원장)이자 GIFT 상담치유연구원 공동설립자이며, 트리니티와 탈봇신학교에서 관계심리학과 영성훈련을 공부했다. 리디아 전 박사는 GIFT 전문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고 있으며 임상심리학 박사다.

몸, 마음 그리고 영혼의 전반에 걸친 전인적 치유에 초점을 두는 새사람 전인치유 세미나는 의사와 임상심리학자가 이끄는 모임답게 의학적이고 정신적인 분석과 대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리디아 전 박사는 "뇌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도 나를 알고 새롭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힘들어 한다.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나를 돌아보며, 또 심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나와 타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세미나에 대해 전 박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경험들로 인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왜곡되게 느끼고 관계를 맺는다. 즉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생각하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많은 경우 각자의 육신의 부모나 과거의 상처의 경험에 영향을 받아 변질되고 왜곡돼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 보며, 또 우리 뇌의 역할도 배우면서, 성령 안에서, 잘못된 하나님 이미지를 다시 바로잡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짐으로, 새사람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돕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GIFT 상담치유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취지 아래 다양한 컨퍼런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유레카 컨퍼런스를 오는 3월 11일은 영어로, 4월 1일은 한국어로 연다. 4월 둘째 주부터는 GIFT 평신도 상담자 훈련반을 개강하고, 내 안에 성인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회복으로의 여행 시리즈 1 교실"도 진행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문의는 연구원으로 전화(714- 522-4438)하거나 웹사이트 www.giftheal.com를 참고하면 된다.

선한믿음교회가 설립 6주년을 맞이해 권사 임직식을 했다.

선한믿음교회 설립 6주년 맞이해

선한믿음교회(박종진 목사)가 교회 설립 제6주년을 맞이해 감사 예배와 함께 권사 임직식을 거행했다.

지난 19일(주일) 오전 11시에 박종진 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됐고 이형우 목사(남가주영동교회)가 대표 기도하고, 고재원 목사(샘솟는교회)가 설교했다. 고 목사는 "내 백성이 마시리라(출17:1-7)"는 설교에서 "이곳이 선한믿음교회의 르비딤이 되어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송택규 목사(세계크리스천영성교회)가 축사하고, 임양택 목사(선한믿음교회)가 권면했다. 이어 새롭게 임직한 김낸시 권사가 답사를 한 후, 박종진 목사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문의 전화) 626-807-3486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 올해는 "하나님 나라"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의 한 장면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기독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Eternal Life)가 올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그 막을 올린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터널 라이프는 매년 부활절을 즈음해 온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을 은혜한인교회 본당에서 선보여왔다. 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연은 6월 2일, 3일, 4일로 공연 일정이 변경됐다.

창조문화선교단의 김현철 감독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 살펴본다"면서 "올해 공연에는 200여 명의 출연자와 40여 명의 스탭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예수께서 물 위를 걷는 장면을 실감나게 연출하기 위해 2D와 3D 화면을 동시에 사용하는 특수 효과도 동원된다. 그는 이번 공연에 함께 할 인재를 모집하고 있으며 지원자는 3월 10일까지 김 감독(전화 213-215-4662)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창조문화선교단은 기독영화 감상회를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열고 있다. 오는 4일에는 'War Room'을 상영할 예정이다. 이 영화는 2015년 알렉스 켄드릭 감독의 작품으로 당시 기독교 영화 가운데 개봉 성적 7위를 기록한 바 있다.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 없는 한 가정에 발생한 위기 상황을 기도로 풀어가는 내용을 담은 이 작품은 기도의 힘을 새삼 증명해 준다. 이 영화는 영어 버전에 한글 자막이 제공된다.

박재란 권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남가주순복음교회에서 열렸다.

가수 박재란 권사 초청 찬양집회

남가주순복음교회(박재만 목사)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여는 성령집회가 지난 2월 24일에는 박재란 권사 초청 찬양집회 형식으로 열렸다.

국민가수 박재란 권사는 "산 넘어 남촌에는"를 부른 70년대 최고의 가수다.

"산 넘어 남촌에는 바로 하나님이 사신다"는 말과 함께 간증을 시작한 그는 나이를 추측할 수 없을 정도의 열정과 활력을 갖고 순서를 이어갔다. 특히 모든 찬양을 외워 부르는 모습에 큰 감동과 은혜가 넘쳤다.

박 권사는 "부와 세상의 인기 가운데서도 만족이 없어서 미국행을 결정했고 미국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호흡하는 것이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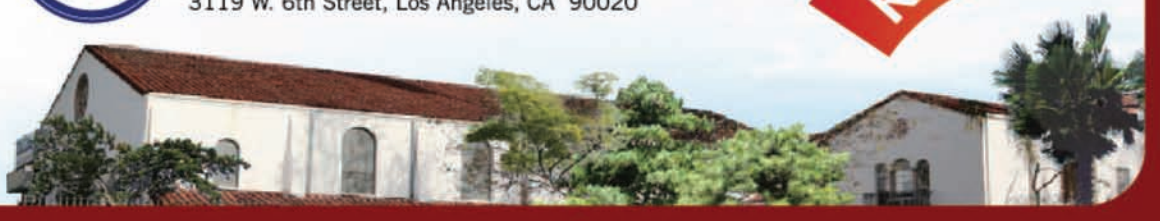
권 쉘비 기자

www.saseducation.weebly.com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학교, 어학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데이케어/프리스쿨, I-20신청, 연방인가, 온라인교육사이트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Since 1999
www.e-nca.org

LA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New Covenant Academy
무료 앱 다운로드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2,048점 기록(전미주 평균 1,500점)
· 지난17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운영(월 $75~$150 정도의 경제적인 비용)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자"

KAPC 서부지역 노회 연합 목사장로기도회 열려

서부 지역에 있는 KAPC 산하 8개 노회가 연합해 기도회를 열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서부지역 노회 연합 목사장로기도회가 2월 27일부터 3월1일까지 글렌데일그레이스교회(담임 정광욱 목사)에서 열렸다. 가주노회, 남가주노회, 동가주노회, 로스앤젤레스노회, 북가주노회, 북미주노회, 서가주노회, 하와이노회 등 총 8개 노회가 참여했다. 또 고택원 목사(현 총회장), 이준우 목사, 전대구 목사, 권혁천 목사, 신효철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다.

첫날 기도회는 양수철 목사(가주노회장)의 사회로 박춘배 목사(북가주노회장)의 대표기도 후 최동진 목사(샌디에고 반석교회)가 설교했다. 그는 '예수를 바라보자(히 12: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초점이 귀결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최 목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이민목회 승리의 관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별기도회는 최동진 목사의 인도로 회개기도와 함께 총회 산하 교단과 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미국이 다시 청교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했다.

환영사를 전한 고택원 목사는 "기도의 불길로 총회가 새로워지길 원한다. 2월 6일 동부지역 노회부터 시작해 기도회가 서부지역과 캐나다, 동남부노회까지 이어진다"면서 "이 기간 총회와 노회와 새로워지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단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이 시대의 종교개혁"이란 주제로 4월 6일부터 7일까지 필라 기쁨의교회(박성일 목사)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김성봉 목사(한국개혁주의장로교연구소 소장)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한민족 개혁교회의 현주소"와 "이 시대의 종교개혁", 프랭크 제임스 BTS 총장은 "종교개혁이 현 시대에 던지는 질문들", 김은일 교수(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신약학)는 "종교개혁의 성경관을 통하여 보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조진모 목사(필라 한인연합교회)는 "칼빈 신학과 경건: 성경적 교회 개혁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고찰", 조영천 목사(소래신학연구소 소장)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목회의 개혁"이란 주제로 강의한다.

이인규 기자

6개 교회 청년들로 구성된 파이어 크루세이드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다.

"청년들이 돌아온다" 파이어 크루세이드

100여 명 참석해 뜨겁게 기도

지난 2월 25일(토) 샘물교회에서 열린 연합 부흥집회 파이어 크루세이드가 은혜 가운데 끝났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모여 LA 땅에 일어날 부흥과 개인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찬양은 6개 교회 연합팀으로 구성된 파이어 크루세이드 예배팀이 인도했고 말씀은 파이어 크루세이드의 설립자이자 지도 목사인 정기정 목사(샘물교회)가 선포했다. '마른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정 목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신앙인들은 결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음"을 강조하고 "그런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각자 우상을 버리고 말씀과 생기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선포했다.

말씀 후에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청년들이 강단 앞으로 나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으며 모든 행사를 마친 후에도 행사 장소를 떠나지 않고 그룹으로 모여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이번 집회는 SNS를 통해 고화질로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되었으며 당일 2,300명이 넘는 사람이 조회하고 약 800명이 재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연합 부흥집회 파이어 크루세이드의 3월 집회는 3월 18일(토) 저녁 7시, 샘물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며 영어 동시 통역과 차일드케어를 제공한다.

문의) 개빈 리 대표 213-505-4292
마크 윤 간사 213-210-9700

남가주 연목회가 최근 총회를 열었다. ⓒ 연목회 제공

남가주 연목회 회장에 김기동 목사

13일 정기총회… 수석부회장은 조종곤 목사

남가주 연세대학교 동문 목회자회(연목회)가 지난 13일 LA 한인타운 내 한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김기동 목사, 수석부회장에 조종곤 목사를 선출했다.

총회 전 예배에서는 이종렬 목사가 사회, 남상국 목사가 기도, 조후연 목사가 성경봉독했다. 고재원 목사가 '그 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출17:1-7)'란 제목으로 설교했고 김정복 목사가 축도했다.

총회에서는 김기동 목사(세리토스충만교회)가 회장, 조종곤 목사(사우스베이선교교회)가 수석부회장에 선출됐다. 김 목사는 일본 선교사 출신이며 OC 교협 회장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OC교협 이사장이다. 조 목사는 미주성결교회 총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뜻을 받들어 조금이나마 미주 사회와 교계, 동문들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말했다.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이상훈 목사의 열방 이야기 8

볼리비아를 '소망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

'한결같다'는 말은 올해로 볼리비아 선교 20년차를 맞이하는 황희수 이수신 선교사 부부에게 적합한 말이다. 20년 전 선교사 파송식에서 내가 가졌던 마음이 새삼 부끄럽고 미안하다. 당시 난 그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늦게 시작한 신학과 목사 안수, 곧바로 선교사 파송, 그리고 20년 선교사역. 신학교 시절부터 보아 온 황 선교사의 선교 비전과 삶과 사역 그리고 부부애는 그들을 아는 모든 이에게 귀감이 된다.

볼리비아 라파스 지역 산타크루즈의 코차팜바가 그분들의 사역지다. 해발 2600미터의 고산지대다. 물이 부족한 척박한 땅의 헐벗은 사람들이 화전민처럼 살던 땅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 믿고 20년을 사역했다. 변화무쌍한 기후와 환경에서 고산병, 심장질환 등을 겪으며 심장혈관 수술까지 받고도 멈추지 않았던 선교사역은 마침내 불가능을 이기고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었다.

그의 꿈은 볼리비아 영혼들의 절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었다. 꿈을 가진 미래의 주인공들을 전도하고 발굴하여 가르치고 양육하는 신학교와 종합기술학교를 세우는 것이 꿈이었다. 말 그대로 맨 땅에서 첫 삽을 떴다. 오십에 이르러 시작한 사역에 가까운 친구들조차 큰 기대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부부를 택하셨음을, 그리고 그 사역을 기뻐하셨음을 매년 실감하게 되었다. 전도하여 가르친 젊은 이들을 중심으로 신학교를 시작하여 볼리비아 정식 인가 신학대학을 세웠다. 차츰 신학교를 중심으로 그들이 자비량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간호학, 의료보조학, 치기공, 농업, 수의학 등 단과 대학을 세워 나갔다. 그 일에 정부가 감사하며 학교의 부지를 무상제공했다.

곁에서 먼저 신학교 사역을 했던 다른 선교사가 사역지를 옮길 때 황 선교사 부부라면 훌륭한 신학교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기 사역지 전부를 무상기증한 일은 미담으로 전해진다. 그렇게 점차 발전하며 명실공히 볼리비아의 전설적인 종합대학으로 만들었다.

배출된 사역자들과 동역하며 볼리비아 곳곳에 주님의 교회를 수십 곳을 세웠다. 필자는 중동의 여러 무슬림 나라를 다녔다. 그곳은 지금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영접 선교를 하는 수준을 점점 벗어나면서 선교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곳의 앞으로의 선교전략에 지금 볼리비아 황 선교사의 종합학교와 그 영적 자원들을 통한 교회개척, 주민 전도사역, 고아원 방문사역, 교도소 전도, 병원운영 등의 남미형 선교모델이 큰 도움이 되는 날이 곧 올 것이라 생각한다. 남미와 동남아,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하나로 어우를 수 있는 선교역량과 비전을 우리 세계 한인 선교사들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드린다.

황희수(오른쪽) 이수신(왼쪽) 선교사 부부

한인들이여! 미스바로 모이라

남가주 한인 신학생 중심으로 미스바연합기도회

남가주 지역 한인 신학생들이 주도해 온 미스바연합기도회가 오는 3월 17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은혜한인교회 세계기도센터(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에서 열린다. 제4회를 맞이하는 이번 기도회의 주제는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다.

2013년 1월, 2015년 2월, 2016년 3월 3차례 열렸던 집회는 토요일 오후에 시작해 6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집회는 금요일 밤에 시작해 5시간 동안 철야기도를 하는 형식으로 변화됐다. 올해는 게이트웨이신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베데스다대학교, 쉐퍼드대학교와 함께 CMF, 미스바워십이 함께 회개와 세계선교, 복음화를 위해, 미국과 남가주를 위해, 한국과 북한을 위해, 교회와 영적 리더를 위해, 가정을 위해, 청년과 신학생을 위해, 환우와 헌신을 위해 기도한다. 문의) 714-315-4617

음악과 커피로 복음 전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커피 한 잔 나누는 곳으로 오게 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최고급 커피를 무료로 대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마원철 목사의 말이다. 이렇게 시작된 히스카페는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 음악회를 통해 더 널리 알려지고 있다. 구성원들 대부분이 전문 음악사역자들이라 너무도 자연스레 시작된 음악회는 그 수준이 결코 다른 음악회에 뒤지지 않는다.

"우리 카페의 구성원은 모두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감사로 보태고 있는 것이지요."

회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이들의 음악회는 "봄 그리고 고향"이라는 주제로 3월 7일 오후 6시 30분 컴미션(1520 James M. Wood Bl. Los Angeles)에서 열린다. 이번엔 특별히 봉봉 사중창 베이스 멤버였던 유준 장로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문의) 마원철 목사 909-292-7474

무료 커피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히스카페의 모습

미주기독한의사협 이사회 개최

미주기독한의사협회(회장 정종오)가 최근 제9대 이사회 첫 모임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용훈 이사장, 박동우 부이사장, 김성일 초대회장, 정종오 회장, 이기미 전임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베트남, 이집트 등을 향한 지속적인 선교후원 및 의료선교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3월 둘째 주일에 영성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문의) 213-703-8541

기독한의사협회가 제9대 이사회를 개최했다.

교회 위한 퀵북 세미나

비영리단체 및 교회, 기업의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제적인 회계 처리를 가르쳐 주는 퀵북(Quick-Books) 강좌가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그레이스미션대 도서관 GL2 강의실에서 3월 10일(금)과 17일(금)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씩 2주에 걸쳐 열린다. 이 강좌는 목사, 선교사, 신학생, 전문인, 학교, 교회, 비영리단체, 기업 등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의는 IT와 경영, 회계 전문가인 제임스 구 교수가 하며 수강료는 150달러다.

문의) 714-393-4595

베델한인교회, 김용훈 목사 부흥성회

김용훈 목사

베델한인교회(김한요 목사)가 춘계부흥성회를 오는 3월 3일(금)부터 5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버지니아 열린문장로교회의 김용훈 목사이며 그는 "하나님께 인정 받는 인생"이라는 주제 아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3일에는 저녁 7시 30분, 4일에는 새벽 6시와 저녁 7시 30분, 5일에는 주일 1-4부 예배 시 집회가 있다.

문의) 949-854-4010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구원의 보장

신명기 11:1-1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시고 세우심을 받은 모세가 애굽에서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이적기사를 나타내 보이셔서 모든 해방의 역사가 가능케 하셨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일과 사막에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이적기사로 하나님이 구원시킬 자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을 더욱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멸망을 고집하고 자청하는 사람들에게는 광야에 다 엎어져 멸망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본문은 남아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목자의 심정에서 호소하고 권면한 내용입니다. 애굽을 떠나면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오늘날 교회생활과 같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신앙에 바른 중생과 성장, 결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본문 1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전제조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구원의 보장과 기대가 확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지고 개통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내가 절감하는 만큼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갖가지 구원을 위한 은혜체험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의식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철부지 신앙의 자리에서 철든 의리와 인격과 예절을 목적으로 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철부지 신앙에 머물러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만 걸고 하나님이 기대거시지 못하도록 하는 입장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마저도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가지라고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63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더 나은 결실과 소망을 위하여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듣는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인생은 다 멸망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기대와 의지를 가지고 복종하며 순종한 사람들은 영생을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면서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 그리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후 뒤따르던 모든 애굽인들을 그 물로 덮어 멸하신 일은 구원의 대상과 멸망의 대상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엄격하신 위력을 언제든지 잊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쉬지 않습니다. 이 징계라는 말은 교육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5~6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했지만 징계를 통하여 영원히 멸망시키는 대상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훈의 성과, 회복의 모습을 보시기 위해 여러 차례 징계를 하셨으나 끝내 그 징계의 결과가 하나님 기대에 어긋났다고 생각이 드실 때 마지막 징계는 유기하심으로 나타났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우리 신앙의 소망적인 발전을 위한 교훈의 목적으로 엮어져 가는 일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광야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교회 가운데서 따로 패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이백오십 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적 위치를 질투하고 시기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6:13-14에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한다며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대열에 끼여 행보는 같이 하고 있었지만 애굽에서의 삶을 추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했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회중으로 하여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주변에서 떠나라 하셨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어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의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속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켰고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동된 250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소멸하였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 거하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세워 앞장 세우신 모세와는 상관없이 지난 날 애굽에서의 생활과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꿈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에 가나안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다가갈수록 그들의 불만은 커져갔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게 하신 이유는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세의 신령한 소망을 목적으로 신실된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시어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려 백성들 중에서 제거하심으로 경고하시는 교훈의 본을 세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다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21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신 땅은 그동안 살아왔던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곳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조건으로 보면 애굽은 참으로 살기 좋은 조건이고 가나안은 메마르고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나안의 조건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언제나 이른 비(9~10월에 내리는 비)와 늦은 비(3~4월에 내리는 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소망의 온전한 결실을 위하여 육신의 생계조건을 가지고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조건을 좇아 살아가지 말고 항상 지켜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담임목사 청빙

우리들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목자,
담임목사님께서 성역에서 은퇴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하여 우리 양무리들을 하나님 중심, 성경말씀 중심,
은혜중심으로 이끌어 가실 선한 목자 담임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받으시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행16:9)

담 임 목 사 님 을 모 십 시 다 .

California의 UC Merced가 있는 대학도시이며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관문 (Yosemite Gateway)인
Merced시의 **멀세드 사랑교회**

1. 제출서류 : PIF(Personal Information File)과 가족사진,
2분의 추천서, Faith Statement(신앙고백)와 목회비젼
2. 제 출 처 : 500 Buena Vista Dr. Merced, CA 95348
담임목사 청빙위원장 안석환 장로
3. 제출기간 : 2월 28일(화)
4. 문 의 : 담임목사 청빙위원장 안석환 장로 T.(209)205-8546

멀세드 사랑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장 안석환 장로 및 온교인 일동
T.(209) 205-8546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www.cincijangro.com

담임목사 청빙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 (KCPP)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참되고 진실하며, 영성, 인성,그리고 지성을 갖추신
선교 지향적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는 1975년 창립 되어
미국 장로교(PCUSA)소속으로 '선교하는 예수 공동체'라는
비전으로 온 성도가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위해
성경적인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 **지원 자격**
1. 미국 장로교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신학대학원(M. Div.)를 마치고, 5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3. 한국어와 영어 사용으로 이민 목회에 불편이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1. 이력서
2. 졸업 증명서(대학교와 M.Div.) 및 목사안수 증명서
3. 자기 소개서(신앙고백, 목회 경험, 성장 배경, 가족 사진, 사모와 자녀 소개)
4. 목회 철학과 비전
5. 3인의 추천서 및 5인의 Reference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
6. 최근 1년 이내의 설교 2편(CD또는 youtube link)

▪ **서류 제출 마감일** : 2017년 4월 30일(일) 소인까지

▪ **제출처**
1.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Cincinnati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
Pastoral Search Committee
5178 Steeple Chase Ct. Guildford, IN 47022
2. Kpccsteam2017@gmail.com

▪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반 우편과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지구의 신음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싱크홀(sinkholes) 현상이 전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싱크홀이란 지표가 무너지면서 크고 깊은 구덩이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지구적으로 관찰됩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과테말라를 필두로 하여,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 11건이었던 이 현상은 2011년에 116건으로, 2012년 110건, 2013년에 199건, 2014년에 323건 그리고 2015년에는 349건으로 많아졌습니다.

싱크홀 현상의 원인으로는 지표에 있는 석회암 지역에 균열이 생기면서 물에 의하여 침식된 공간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는 싱크홀 현상은 그 자체로 연구하기보다는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지진과 연결하여 생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도한 지하수와 원유의 채취는 분명 지각의 함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각의 균열은 싱크홀과 지진의 발생을 더욱 잦아지게 만듭니다. 최근에는 지각의 균열을 태양의 전자파와 연결시켜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태양의 복사파의 증감이 지구에 영향을 주어 지각의 균열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상황은 죄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표를 채우고 있는 고통스런 식물인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인간의 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창3:17-18). 노아의 홍수로 인한 전 지구적 대격변과 자연계의 훼손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더욱이 이 시대에 우리는 자연의 훼손과 환경의 파괴가 인간의 탐욕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및 기상무기로 지구를 멸망케 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재앙은 당시의 세계를 장악한 이집트의 범죄와 억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태양의 빛은 흑암으로, 강은 피로, 초목은 우박으로, 짐승은 이로, 인간은 각종 부스럼과 악종으로, 그리고 인간과 동물은 초태생의 죽음으로 징벌을 당합니다. 인간에 대한 심판은 자연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자연의 피폐함과 황폐함, 그리고 인간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실현입니다. 자연의 신음은 인간의 범죄와 유기적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변동과 재난은 순수하게 자연적인 변화라고만 보아서는 아니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고대의 지혜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암4:6)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암4:8)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암 4:9).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인류의 탐욕적 문명의 특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신앙 건강 점검하는 5가지 지표

정 기 정 목사
샘물교회

생물을 정의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살아있다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살아있는 것은 물질 대사를 합니다. 영양분을 섭취하고 자신의 자양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다는 것은 건강의 적신호이고 먹지 못한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고 건강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자신의 영양분으로 만듭니다.

2. 생물은 자극에 반응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기쁜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마음도 기쁩니다. 아픔을 당한 이웃을 보면 함께 마음이 아픕니다. 구원받지 못한 친지를 만나면 복음을 전하여 살리고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3. 생물은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지와 줄기, 잎이 성장하던,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이 땅 속으로 내려가던 살아있는 것들은 자라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작년보다, 지난 주보다, 어제보다 우리의 영혼은 자라나고 성숙해야 정상입니다.

4.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체온이나 혈당량과 같은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자신을 보호합니다. 외부 환경과 함께 이런 수치가 움직인다면 죽은 것이지요.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확신과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이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5. 생물은 재생산을 합니다. 세포는 분열하고 유전정보를 딸세포에게 전해줍니다. 동물은 번식합니다.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음 세대를 남기고 유전 정보를 전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믿음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낳습니다.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나를 닮은 제자를 세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으로 결국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어도 이런 생명의 사인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생명에 거하도록 아름답게 가꿉시다.

그 치즈 언제 다 먹어 볼까?

김 성 민 목사
팰리세이드교회

미국에 온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 살았던 기간의 2배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이민 오면서 고민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한국말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에 가면 늘 햄버거만 먹어야 할 텐데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미국에 와서 지난 36년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말은 더욱 늘었고, 햄버거 먹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미국에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 지역에 사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회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켓을 방문할 때마다 "이 많은 음식을 언제 다 먹어 볼까?"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치즈인데, 그렇게 많은 종류의 치즈가 있지만 먹어 본 치즈는 아마 10가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켓을 가서도 치즈 파는 곳을 늘 지나며 "한 번 새로운 것을 먹어 볼까?"하는 생각으로 다른 제품을 만져 보기도 하지만 다시 제자리에 놓고 나올 때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새로운 것도 한 번 먹어 보아야 할 텐데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봅니다. 만일 그 맛이 이상하면 모두 버려야 한다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돈을 낭비하기 싫어서인가?" 생각도 했지만, 돈이 많이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언제 다 먹어볼까?" 물론 전부 다 먹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살면서 우리에게 풍부한 상황이 허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대문 제품을 고집한다고 한다면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며 살기보다는 나에게 익숙한 36년 이전의 입맛 가운데 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부어 넣으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새로운 것이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시는 은혜는 늘 새로운 부대와 같은 팽창되어도 터지지 않을 주머니와 같은 좋은 마음에 부어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과거 저의 목회 사역을 돌아 볼 때에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가 많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2세 사역을 할 때에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만한 믿음을 위하여 가르치고 도전한 것보다는 변화의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보다는 내가 먹어 본 것만을 고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워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매주 옷만 바꾸어 입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언제 다 그 맛을 볼 수 있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맛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36년 전 생각에 고정되었다면 저는 2017년에는 맞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요? "나는 지식이 풍부하고, 사역에 많은 경험이 있는 품질 좋은 바리새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몰래 만지며 12년의 혈루병에서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 사람과 같은 감격으로 동네를 뛰어다니며 일하며 복음을 전할 것인가?" 결정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로마서 7장 6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형식과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딱딱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전에 먹어보지 못한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 푹 젖어서 살아갑시다. 그 때에 후회 없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Zn Cr Zn Cr Z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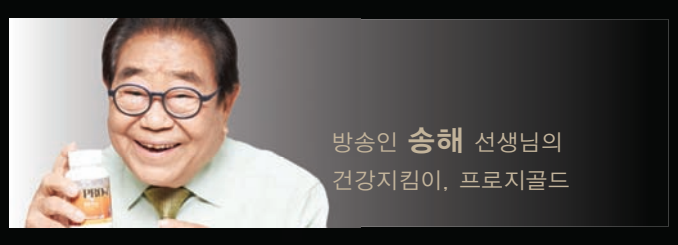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의 전화 **213. 434. 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반기문 전 총장 "기독교 영향력 커…크리스천 역할 중요"

극동방송 특집 프로그램 출연해 근황 등 나눠

유력 대선 주자였다가 도중 불출마 선언을 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서구의 문명이 기독교의 문명과 함께 성장했다. 우리나라 또한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나라가 발전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큰 만큼 종교 지도자와 크리스천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최근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의 대표적 인터뷰 프로그램인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특집 공개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약 500명이 모인 가운데 1시간 가량 진행된 녹화에서 그는 UN 사무총장 재임 시절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털어놨다.

반 전 총장은 "초등학교 시절 교회에 다녔고, 총영사를 하면서 미국의 여러 교회를 방문했다"며 "UN 사무총장 재임 시절, 임기 전부터 김장환 목사님께서 매년 12월이면 UN을 방문해 조찬기도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열 두 차례나 방문해서 기도해주셨다.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최근 자신의 근황에 대해서는 "UN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던 10년 동안 경호상의 문제로 자녀들 집에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다"며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는 왜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오시는지 묻더라. 생각도 정리할 겸, 막내딸 부부를 방문하러 케냐에 다녀왔다"고 전했다.

반기문 전 총장

그는 "우후루 케타냐 케냐 대통령과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케냐를 방문 중인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과 협력 방안 등에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선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선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를 하고 싶었다. UN 사무총장 당시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정치에 입문했지만, 내 힘 하나만으로는 힘들다고 생각돼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신천지와의 연관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해명했다. 그는 "매년 3월 8일은 UN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이 행사에 참석하면 많은 여성 대표들과 사진을 찍는다. 사진을 찍을 때 소속이 어디인지, 어떤 분인지 묻고 사진을 찍지는 않는다. 그날도 그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과 함께 연관 보도가 됐다"고 했다.

반기문 전 총장이 녹화방송에 임하고 있다. ⓒ극동방송

한편, 이날 녹화 현장에는 지난 2014년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500회 특집에 출연해 'UN 사무총장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이수민 학생(당시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단장, 17세)이 반 전 사무총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방송에 함께 하기도 했다. 이수민 학생은 500회 특집방송 출연 후 그해 12월, 김장환 목사와 함께 UN을 방문했다.

반 전 총장은 당시 UN을 방문했던 이수민 학생을 떠올리며 "사무총장 재임 당시 후임으로 여성 사무총장이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후보가 13명이었는데 이 중 7명이 여성이었다. 이수민 학생처럼 장래가 유망한 학생들이 후에 여성 사무총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UN 사무총장의 자질을 묻는 이수민 학생에게 그는 "공직과 인류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남을 위한 삶을 기꺼이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희생 정신을 닮아야 한다. 국제 사회를 보는 국제관과 어학 실력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 전 총장은 청년 등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다. 그는 "UN 사무총장으로 있던 당시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실현하려고 했다. 청소년 담당 특별 대표로 28세 요르단 청년을 임명했는데 당시 젊은 대표가 임명된 것 자체가 파격적 인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고민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며 "다음세대가 보다 밝고, 보다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력이나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이 출연한 공개방송은 한국시간으로 24일 오후 1시 전국 극동방송 라디오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됐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인 증가는 한국교회 군선교 사역의 결실"

2012년 5월 19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9,519명에게 세례를 동시에 주던 모습.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곽선희 목사) 중앙본부 제46차 정기총회가 오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여전도회관 2층 김마리아실에서 열린다.

연합회는 2017년 군선교 사역의 4가지 주요 비전으로 ▲올해 안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 건축 마무리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 내실화 ▲군선교 사역의 대중화와 후원회원 확보 ▲청년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Yes Mission(예스미션)의 활성화 등을 위해 중앙본부, 전국지회 임역원 및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최대 과제인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 완공을 위해 안전시공과 재원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교회-학교-군대-직장'을 한 벨트로 묶는 청년사역 예스미션 사역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작년 말 통계청 자료에서 나타난 '123만 명의 기독교 신자수 증가' 현상이 지난 1996년부터 한국교회가 꾸준히 실천해 온 육·해·공군·해병대의 장병전도 진중세례(침례)운동인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의 결실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순서도 갖는다.

연합회는 "불신자 전도가 어려운 이때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04군인교회에서 약 160만 명의 청년에게 진중세례(침례)를 주고 양육하여 신자수 증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기출협 기독교출판문화상 시상식

한국기독교출판협회(회장 한동인 장로) 제43회 정기총회 및 제33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시상식이 27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연회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이원우 부회장과 박영호 이사가 각각 선출됐다.

시상식에서는 수상작을 배출한 출판사들에게 상패가 수여됐다. 대상은 생명의말씀사 〈기독론(문병호 교수 저)〉이 선정됐다. 지난 2년 간(31·32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은 대상 수상작이 없었다.

최우수 수상작은 어린이 부문 국내 〈버들부인과 아들(홍성사)〉, 국외 〈칙칙폭폭 교리기차 시리즈(예키즈)〉, 청소년 부문 국내 〈재밌는 성경세트(전 3권, 성서원)〉, 국외 〈당신을 위한 스토리 바이블(두란노)〉, 신앙일반 부문 국내 〈결혼을 배우다(토기장이)〉, 국외 〈영성의 깊은 샘(IVP)〉, 목회자료 부문 국내 〈고고학으로 읽는 성경(CLC)〉, 국외 〈구약을 읽다(죠이북스)〉, 신학 부문 국내 〈거룩한 칭의(예영)〉, 국외 〈기독교 교리와 해석학(새물결플러스)〉 등이다.

우수 수상작은 어린이 부문 국내 〈스토리텔링 복음동화 세트(전 4권, 언약의책)〉와 〈겨자씨 성경(전 12권, 겨자씨)〉, 국외 〈우리아이 처음 ABC(토기장이)〉와 〈이야기성경 아이엠(더드림주니어)〉, 청소년 부문 국내 〈성, 이성교제, 결혼과 혼전순결(베다니)〉, 국외 〈창조과학 백과(생명의말씀사)〉이다.

우수작 신앙일반 부문은 국내 〈오늘 살 힘(규장)〉과 〈리액션(요단)〉, 국외 〈오디너리: 평범함으로의 부르심(지평서원)〉과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두란노)〉이었다. 우수작 목회자료 부문은 국내 〈빌립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성서유니온)〉와 〈출애굽 루트(쿰란)〉, 국외 〈몽고메리 보이스의 창세기(전 3권, 솔라피데)〉와 〈기독교 위기상담(그리심)〉이 선정됐다.

광화문 촛불집회 모습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어떻게 봐야 하나

평택샬롬나비, 시국토론회 통해 고찰

평택샬롬나비가 23일 오후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에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주제로 시국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종건 평택샬롬나비 사무총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시국토론회에선 김승진(산본영광교회 담임)·박종서(양지평안교회 담임)·서충원(샬롬누리영광교회 담임) 박사, 박종운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먼저 김승진 박사는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21세기에, 그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체인 우리 국민들도 그러한 사태에 대해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를 용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김 박사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것들을 그야말로 다시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책임적 주체로서 그 동안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방치, 방관, 묵인, 무관심한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체제 속에서 현실정치가 더 이상 진정한 주권자요 민주주의의 주체인 우리 국민을 무시하거나 기만하거나 우롱하지 못하도록 부릅뜬 눈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면서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권자요 주체인 우리의 권리와 책임을 되찾아 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종서 박사는 "수구 보수 기독교의 잘못된 성경관에서 태극기집회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태극기집회의 거의 모든 리더들은 기독교 목사들"이라며 "성경만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믿는 전능적이고 경직된 생각은 이들의 지적 능력과 사고를 마비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교회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선과 악, 사단과 하나님에 대한 마니교적인 이원론 역시 대중들의 불안과 연합될 때 그들로 하여금 유아에 머물게 하며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태극기집회에 열광하고 반공과 안보에 휘둘리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서충원 박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거슬러 불의로 나라를 망친 사건이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기도 하다"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양심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한 사건"이라고 했다.

서 박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정의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회에 도래하기를 갈망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민주시민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불의한 정권에 저항해야 한다"며 "국가의 정의가 위협을 받고 이로 인해서 국가의 정신적 토대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정의를 위해,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일어나서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개신교는 자기를 절대화하면서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정치권력의 정치적 우상숭배에 대항했던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의 정의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데도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방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인이 훼손한 불상, 복원하려다 파면

서울기독대학교(총장 이강평) 신학전문대학원 손원영 교수가 지난 17일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당했다. 이에 손 교수가 20일 오전 서울 돈암그리스도의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손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순, 60대의 한 기독교 남성이 늦은 밤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불교의 한 사찰에 난입, 불상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손 교수는 "당시 이 소식을 접하고 신학대 교수로서 심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 '사랑과 평화의 종교인 기독교가 어떻게 폭력과 증오의 종교로 변질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손 교수가 직접 사찰 관계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불당 회복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했다는 것.

손원영 교수가 돈암그리스도의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것을 '우상숭배'로 보고,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교수에게 있어 사형에 해당하는 '파면' 조치를 했다는 게 손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종교간 평화를 위해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한 일일 뿐 우상숭배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학교 측이 저를 파면한 행위는 학문의 전당이자 양심의 보고인 대학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종의 변란"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반헌법적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손 교수에 대한 징계와 관련, "손 교수는 우리 대학과 그리스도의교회 정체성과 관련해 2013년부터 논쟁의 대상이 됐다"며 "지난해 사찰 돕기 모금 활동이 언론에 보도된 후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가 손 교수 신앙의 정체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그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교회 신앙의 정체성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와 신학과는 손 교수의 신학적 정체성이 그리스도의교회 정체성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즉, 손 교수는 자신의 신학적 바탕이 해방주의와 수정주의라고 공공연히 말해왔는데, 이는 서울기독대의 정신과는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손 교수가 학교 측 입장과는 상반되는 발언들을 한 것 등을 장계 사유로 적시했다.

그러나 손 교수는 자신이 해방주의와 수정주의 신학을 따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손 교수는 학교 측의 이번 파면 결정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쉽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주일감사예배 : 주일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 저녁 8:00 새벽기도회 : 오전5:30(월~금)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새언약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3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강양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65-9693, (213)434-1083 www.new2011.org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 S. Rosemead Blvd., Pasadena, CA 91107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92405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 KPCA 해외한인장로회 교단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권오균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E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뉴욕목사회, 한국 위한 기도 동참

조찬기도회 기도문 배포하고 삼일절 기도회 참석 요청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김상태 목사)가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대뉴욕지부(강현석 회장)가 제작한 '사상 초유의 국난과 위기에 처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문'을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 사업회 뉴욕지회(회장 안창의 목사)가 개최하는 삼일절 특별기도회 참석을 회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요청하는 등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모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뉴욕목사회는 24일 회원들에게 전달한 공문을 통해 제49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3월 2일 오전 7시 서울 코엑스에서 기독교계를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각층의 지도자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면서 국가조찬기도회 측의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문을 공유했다.

한국에서의 행사와 별도로 국가조찬기도회 대뉴욕지부는 3월 1일 오후 수요예배에서 뉴욕의 목회자들과 모든 교회가 함께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문을 공유하고 이를 두고 함께 기도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기도문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위기와 관련, "좁은 문은 피하고 넓은 길을 택했으며, 어둠을 사랑하고 불의한 길에 나서기를 먼저 했습니다"라면서 "진리 아닌 것에 현혹되었으며, 생명이 아닌 세속 가치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량주의 우매함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회개하면서 참회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탄핵정국과 관련해서는 "니느웨 백성들처럼 왕과 대신들과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 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시고 각자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게 하옵소서"라면서 "지금 이 나라의 정국은 심히 혼란합니다. 하루 속히 병리현상이 치유되어 법치가 세워지고 도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분단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

또 목사회는 25일 공문을 통해 오는 3월 1일 오후 3-5시 후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 사업회 뉴욕지회 주최로 진행되는 '삼일절 기념 태극기 집회'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회원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애틀랜타교협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림 일대일 양육세미나 개최한다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송상철, 이하 교협)가 지난 23일(목) 정기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매 정기임원회마다 교단 목회자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한 교협은 이날 침례교단 목회자들을 초청해 서로의 사역을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상철 회장은 "경쟁적인 이민사회에서 물러나 협회 회원목사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이날 모임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교협은 오는 4월 16일로 예정된 부활주일 연합예배에 대해 논의하고 '그림 일대일 양육세미나'에 대해 공지했다. 교협이 주최하고 애틀랜타한인목사회가 주관하는 '그림 일대일 양육세미나'는 내달 14일 오전 10시 알파레타 소재 새한장로교회에서 개최된다. 송 회장이 세미나 강사를 맡아 진행하며 대상은 목사와 사모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 등이다.

송 회장은 "새한교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이 프로그램으로 2차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한 결과 비신자 80여 명을 포함해 총 250여 명을 전도할 수 있었다. 또 교인들의 삶이 변화되는 많은 간증들이 나오고 있다. 개교회 담임목사의 승인하에 타교회 교인들도 이번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말씀, 기도, 교회의 본질과 비전, 베푸는 삶, 예배, 선교비전, 기본적인 신앙생활로 이뤄지는 교육을 통해 신앙생활의 골격을 잡아줄 수 있다. 평신도에게는 사역의 장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고 복음 중심 및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윤수영 기자

남대서양대회 한인여선교회협의회 특별기도회가 열렸다.

미국장로교 여성들 특별기도회 개최

미국장로교(PCUSA) 남대서양대회 한인여선교회협의회(회장 김철식, 이하 PWKPC)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다니엘기도원(원장 은호기)에서 특별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도회에는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에서 활동하는 소속 교단 여성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별기도회 강사로는 남대서양대회 한인교회협의회 부회장 이문규 목사(한빛장로교회)가 나섰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세계에는 중심이 있다. 우리도 중심을 잡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일평생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우리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세워 나가자"고 말했다.

이 목사는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중심을 잃어가는 이 세상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자. 우리 여선교회에도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자"고 덧붙였다.

이틀에 걸쳐 찬양과 설교를 함께 나눈 회원들은 지역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주역으로서 기도에 힘쓰겠다고 결단했다.

한편, 주최측은 이번 기도회의 헌금이 조지아 스미스주립교도소 사역후원금으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수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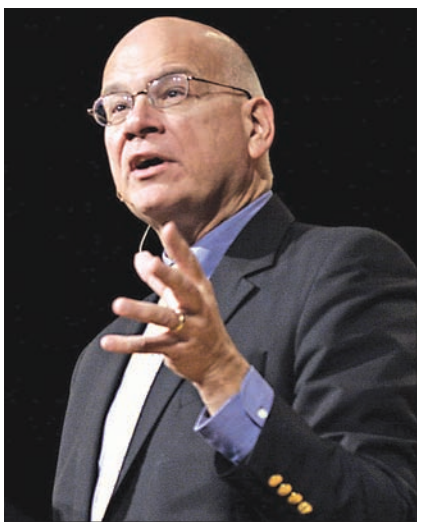
리디머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 7월에 강단 떠난다

미국 뉴욕 리디머장로교회 팀 켈러(66) 목사가 올해 7월 담임목사직을 그만둘 예정이라고 크리스채너티투데이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켈러 목사는 이날 주일예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8년 전 설립된 리디머장로교회는 교인수가 약 5,000명으로 성장함에 따라 3개 교회로 전환하기 위한 10년 장기계획을 세웠는데, 켈러 목사의 이번 결정도 이같은 계획의 일환이다. 켈러 목사는 오는 7월 1일까지 임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강단에서 물러나는 것이 은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신 켈러 목사는 리폼드신학대학교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가르치고, 리디머장로교회의 도시교회 개척 네트워크인 '시티 투 시티' 프로그램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켈러 목사의 아내인 케시 켈러 사모는 "켈러 목사님한테는 교인들과의 관계가 특별한 수준에 있다. 담임직을 내려놓지만, 앞으로의 일도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데 매우 흥미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자가 되어 싶어한다"고 밝혔다.


팀 켈러 목사 ⓒFrank Licorice/flickr.com

강혜진 기자

"동성애는 죄" 올린 계정 차단한 페이스북 결국 사과

'반(反)동성애'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식 계정을 차단했던 페이스북이 이에 대해 사과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23일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존스턴의 글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한 것은 '실수'였다. 논란이 됐던 2개의 글은 다시 복구됐다"면서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이날 존스턴에게도 "페이스북 팀이 의도치 않게 2개의 글을 삭제했다"면서 "이같은 실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존스턴은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측의 사과를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언론에서 다뤄지기 전까지 페이스북은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서 "이번 일이 실수였다는 해명은 농담 수준"이라고 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월 9일 보수적인 성향의 '액티비스트 마미'(The Activist Mommy) 계정을 차단했다. 계정 운영자이자 오하이오의 홈스쿨링 교사인 엘리자베스 존스턴이 6개월 전 "구약 성경의 레위기는 동성애를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죄'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다.

존스턴은 자신이 올린 영상에 한 이용자가 "레위기에서는 생선과 돼지고기도 금하고 있는데, 이는 지키지 않으면서 동성애만을 정죄하는 기독교인들은 위선적"이라고 댓글을 달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다.

이후 그녀는 페이스북으로부터 "당신의 글은 페이스북 운영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됐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받았고, 실제로 그녀의 글은 삭제됐다. 또한 3일 동안 계정 운영이 차단됐다.

2월 12일 계정이 다시 살아난 후, 그녀는 팔로워들에게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됐다는 사실과 함께 페이스북의 경고문을 캡쳐해 올렸다. 그리고 앞서 올렸던 성경의 내용을 다시 올렸다. 그러자 페이스북은 다시 7일간 그녀의 계정을 차단해 버렸다.

강혜진 기자

기독교 선교의 최우선 순위는 유대인

존 파이퍼 목사가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파이퍼 목사는 21일 '하나님은 향한 갈망'(DesiringGod.org) 블로그에 "약 6만 명의 유대인들이 내가 고향으로 여기는 트윈 시티스(세인트 폴, 미니애폴리스)에 살고 있으며, 미국에는 약 500만 명의 유대인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400만 명이 넘는다"면서 "아직도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퍼 목사는 "사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유대인으로서 진정한 정체성이 끝난다고 믿는다"면서 안타까워했다.

그는 유대인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졌다"고 말했다.

파이퍼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먼저 오셨다"면서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기독교 선교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하나로서 오신 분이 아니다. 진정한 메시아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참된 중보자"라며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3:36)고 언급하셨다"고 덧붙였다.

존 파이퍼 목사

파이퍼 목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얻는 구원의 큰 소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약에서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와 함께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현실의 모습도 그리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을 향한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서 유대인 친구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 한 세속적인 유대인은 작년 9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유대인 친구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있었는데, 동시에 새로운 신앙을 통해 유대교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금요찬양예배 7:30 PM
주일학교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토요일 6:30 A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o.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LA cst# 212654040 PRT Tour & Consultin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플러싱 지사 (718)928-3333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로스엔젤레스 지사 (213)739-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토론토 지사 (647)686-6000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서울 지사 (02)739-0890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기독일보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생생한 종교개혁의 현장을 체험하세요~
실제 모형을 그대로재현해 놓은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성경속 산책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5일 $999 ▶문의 (항공포함)
▶시카고 – 인디애나 폴리스 – 신시내티 – 인디애나폴리스 – 신시내티
① 시카고 시티 투어 – 밀레니엄 공원 / 시청
② 인디애나 폴리스 주 의사당 외부관람
③ 창조박물관 – 성경 창세기의 천지창조 기록물을 보관
④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ARK투어 – 실물크기의 노아방주 모형
⑤ 신시내티 내셔널 언더 그라운드 레일로드 프리덤 센터
⑥ 링컨생가 및 뮤지엄 – 남북전쟁에서 노예 해방을 이끈 대통령의 생가, 뮤지엄
⑦ 맘모스 케이브 국립공원(세계최장 동굴) – 켄터키 주에 있는 메머드 동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유럽 4개국 성지순례와 문화탐방
8일 $2,600 ▶4/24 (항공포함)
▶프랑크푸르트 – 하이델베르그 – 프라이부르그 – 루째른 – 취리하 – 로텐부르크 프라하 – 드레스덴 – 비텐베르크 – 라이프치히 – 아이제나흐 – 프랑크푸르트
① 황태자의 첫사랑 하이델베르그 & 칼뱅 종교개혁지 순례
② 유네스코 문화유산 쁘띠 프랑스 스트라스버그
③ 호반의 도시 스위스 루체른 & 츠빙글리 취리히
④ 보헤미안 천년성 체코 프라하와 얀후스 개혁지
⑤ 종교개혁 메카 루터 비텐베르크 & 라이프치히

새로운 여행 문화를 창조하는 푸른여행~ 푸른감동~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Aviara Glof Club Carlsbad, CA
특선1 기아클래식 결승전 참관
LPGA 기아 클래식
$99 ▶출발 : 3월 26일 (일)

유일한 한국 안보 관광 투어입니다 / 항공포함
특선2 포항 – 울산 – 경주 – 평창 고성 – 서울 – 평택 – 철원 등
2017 재향군인가족 5박6일 안보산업시찰단 (한국) ▶4/10
$1,750

신비롭고 경이로움이 가득한 곳 ~ 옐로우 스톤 / 항공포함
특선3 버팔로와 무스 사슴이 길을 막고 있는 야생동물의 천국
옐로스톤 3박 4일
$799 ▶특별출발 : 5/26 6/12, 19, 26 7/3, 10,31 8/7

푸른투어 특선
기존 세도나와 완전 차별화된 코스
미티어 크레이터 / 세도나 기차 / 생태 크루즈 4일 $399
▶3/13 4/3,24 5/15 6/5
▶ '세도나 기차' ($100상당 옵션 포함)

최고의 자연석조 다리를 만나보세요
레인보우 브릿지 /모뉴멘트 벨리 4일 $399
▶3/17
▶ 레인보우 브릿지로의 가벼운 산책 후 만나는 300피트 자연 석조 다리

드라마 '도깨비' 속 퀘벡에 가다
캐나다 동부 (항공포함) 5일 $1,399
▶매주 월/금
▶ 토론토 시내관광 – 세인트 로렌스 마켓
▶ 오타와 의회 연방의사당 리도홀

MEXICO 관광성 후원
캔쿤 치첸이사 4일 $1,200 (항공포함)
▶3월 18일 특별출발
"태양의 신전 그림자가 만들어 내는 미스테리 Kukulan의 기적은 3월 20일(목) 3:30 p.m ~ 5:30 p.m 사이 펼쳐 집니다."
최고급 5성급 호텔 숙박 (Riu Resort)
항공/호텔/식사/주류/관광/안내 일체 포함

미 서부, 동부, 캐나다, 한국 모든 여행을 푸른투어 5개 지사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대자연과의 만남 미서부
다른회사와 차별화된 미서부 관광
① 라스베가스 특급호텔 몬테카를로 호텔 숙박
② 디럭스 리무진 라스베가스 야경 투어
▶매주 월 그랜드 캐년 / 브라이스 캐년 / 자이언 캐년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4일 매주 화 – 7일 매주 화 / 토
4대 캐년 4일 $389
4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매주 화 / 토
그랜드 캐년 / 라스베가스 3일 $299
▶매주 월/목/금/토
요세미티 / 샌프란시스코 4일 $389
▶매주 화 / 토
미서부 실속 여행 6일 $599

푸른LA 일일투어
▶매일 출발 (4인이상, 한인가이드) $99
올베라거리/다운타운/다저스스타디움/그리피스천문대/헐리웃거리/로데오거리(차창관광)/산타모니카해변/파머스 마켓/그로브 몰 등

"9대 캐년 완전정복" 그랜드 써클
6박 7일 $829 ▶3/24, 4/8, 4/28
그랜드 캐년 / 브라이스 캐년 / 자이언 캐년 / 아치스 캐년 / 앤텔로프 캐년 / 모뉴먼트 밸리 / 캐피틀 리프 / 캐년 랜즈 / 글렌 캐년

"특급 몬테카를로" 미서부 4대 캐년
3박 4일 $389 ▶매주 화 출발
자이언 / 브라이스 / 앤텔로프 / 그랜드 캐년

라스베가스 특급 몬테카를로 호텔 숙박
최고급! 디럭스 리무진 야경투어~

한국 벚꽃맞이 한국일주 8일 $2,099
천년의 제국 아고구려 공연/칠십리 유람선 [대한항공] ▶3월 30일
– 부여 / 담양 / 화개장터 관광 / 통영항과 한산대첩지 / 진해 벚꽃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동서남북 누비다!"
新 한국기행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상품구매 가능!!
160,000마일리지 전국일주 7일 ▶토 $1,140 +항공
85,000마일리지 서남부 4일 ▶토 $610 +항공
85,000마일리지 남동부 4일 ▶화 $610 +항공
60,000마일리지 한려수도 3일 ▶월/금 $430 +항공

정통 미국을 즐기려면 미동부
① 푸른 유일 $100상당의 3대 옵션 포함 – 타사 비교 요망
1) 자유의 여신상 2)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입장료 3) 시닉터널
② 미동부 캐나다 사은특가 특선 관광 (3월/4월)
실속 미동부 5일 ▶매주 수/토 $450 +항공
(뉴욕/워싱턴 DC/나이아가라)
미동부 6일 ▶매주 수/토 $550 +항공
(미동부 5일 + 천섬)
미동부/보스턴 7일 ▶매주 수/토 $660 +항공
(미동부 5일 + 보스턴/뉴포트)
미동부/캐나다 8일 ▶매주 수/토 $760 +항공
(미동부 6일 + 몬트리올, 레이크조지, 퀘벡)
미동부/보스턴 캐나다 10일 ▶매주 수/토 $950 +항공
(미동부/캐나다 8일 + 보스턴/뉴포트)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LA PRT Tour & Consulting cst# 212654040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무료픽업 가능 : 가든그로브/토렌스/세리토스/가디나/다이아몬드 바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라신에 있는 고대 회당 유적

모세가 앉아서 재판을 했다는 모세의 의자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24)

폐허의 고독 고라신

고라신(Chorazin)으로 가는 길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제자들의 훈련과 파송 장소였던 가버나움에서 북동으로 약 4km(2.4 마일)지점 상류 요단강의 갈릴리 바다 마지막 합류 지점인 벳새다의 요단강 서쪽 지점에 고라신이 있다.

갈릴리 바다의 최대 도시인 티베리아스에서 고라신까지는 21.1km(13.11 마일) 떨어져 있다. 이곳에서 좀 더 내려가면 벳새다를 만나고 벳새다가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헬몬 산으로 갈 수 있으며 동남으로 갈릴리 바다를 끼고 돌아가면 거라사 지방과 골란고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

현재는 큰 도로상에 있지 않고 작은 지방도로에 있어서 찾기가 쉽지는 않다.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는 60번 도로와 65번 도로를 경유하여 갈릴리 바다 북서쪽으로 약 48.3km(30마일)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

이곳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소외된 곳이다. 마11:21과 눅10:13의 무대이다. 고라신은 '나무 많은 곳'이란 뜻이다. 오늘날 이곳은 전혀 나무가 없는 황폐한 지역이지만 고대에는 유대인들이 주요한 밀 경작지였고 16세기 무렵부터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의 중요한 거점 도시였다.

성경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방문하셨고 권능을 행하시며 사랑하였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가버나움, 벳새다와 함께 갈릴리 북부 해변의 중앙을 이루는 성읍이었고, 상당한 인구가 거주하였던 도시였던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였을 때 납달리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으로서 납달리 지파가 이방인들과 더불어 살았던 지역으로 보여 진다. 지금도 폐허가 된 고라신을 방문하여 보면 회당이 성읍의 중심이 되어있음을 본다. 아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더불어 살았던 것 같다. 성의 이름이 암시하듯이 이 지역은 주로 농업을 하는 곳으로 올리브 생산에 사용되었던 압착기와 포도주 틀이 발굴되고 있다. 고라신이 올리브유 생산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렸음을 알 수 있다.

농업의 산물로 풍요로움이 넘쳐서일까?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사랑하셨던 도시지만 회개치 아니하므로(마11:20) 주님의 책망을 받고 종국에는 주후 6세기에 일어난 지진에 의해 완전한 파괴가 돼 사람들은 더 이상 살지 않는다.

고라신의 발굴

현재는 이스라엘 국립공원(National Archaeological Park)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고 1962년부터 1964년까지, 1980년부터 1987년까지 두 번에 걸친 대규모 고고학적 발굴을 시도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발굴 결과 검은 현무암으로 된 유적물들이 많이 발굴되었는데 이것은 갈릴리 주변의 화산활동과 관련된 지질학적 특색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의 건물들은 검은 색의 현무암으로 지어졌으며 기원후 3세기 말에 지어진 회당을 비롯한 도시의 여러 부분들이 발굴되어 정리되어 있다.

고라신에서 특히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유대인 회당 안에 모세가 앉자 있었다는 상석이다. 회당 문 곁 우측으로 돌 의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모세의 의자(Cathedra)'다. 바로 이 의자가 모세가 옛날 출애굽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때 앉자 있었다는 상석인 것이다. 이 의자에는 "Remembered for good"이라는 고대 문자가 새겨져 있다.

현재 이 의자의 원본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원래 자리에는 똑같은 모양의 현무암을 깎아서 만든 의자가 놓여있다.

회당 유적에는 메두사 즉 뱀 모양의 여신이 발견되는데 이는 로마 점령하의 팔레스타인에서 헬라문화가 용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회당의 정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으며, 회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매 3번째 계단을 넓게 만들어 불규칙하게 하였는데 이는 예배시간에 늦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계단을 뛰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한다.

고라신의 역사

고라신은 갈릴리 바다가 잘 내려다보이는 비탈에 자리잡고 있으며 넓이가 3만평에 이른다. 가버나움과 벳새다와 더불어 삼각형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주변에는 고인돌이 산재한 것을 보면 고대에도 주거지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고라신은 주후 1세기에 벳새다와 프톨레미 도로와 인접 무역로를 끼고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주후 135년에 번성하였고, 주후 3세기에 가장 번성하였다. 주후 3세기에서 4세기 비잔틴 기독교 시대가 도래하던 때에도 이곳은 여전히 갈릴리에 있는 유대교의 중심 도시 중 하나였다. 이 시대에 2개의 유대교 회당이 지어졌고 그 크기는 길이 23m, 폭이 17m나 되고 2층으로 지어진, 요즘에 보기에도 커다란 건물이었다. 회당은 안식일 거리를 고려하여 건설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큰 도시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곳에서 주후 3-4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주요 주거지와 4-5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회당의 부속 건물들 제식용 목욕탕인 미크바(Mikvah)를 볼 수 있다.

고라신의 교훈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자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저희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문안 받는 것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려주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다.(마23:12) 전부는 아니겠지만 당시 회당에는 상석이 있었고 그 상석을 모세의 자리라고 했던 것 같다.

오늘날 폐허로 변한 회당과 고라신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으리라." 고라신 그 황폐한 곳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가보아야 될 황폐하지만 아름다운 곳이다. 일정상, 형편상 고라신을 찾지 못하는 이들은 갈릴리의 아름다움만 느끼고 고라신의 폐허 속에 피어있는 말씀의 꽃을 보지 못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필자는 2005년 9월 17일 이집트 룩소에 있는 왕가의 골짜기와 카르낙 신전을 방문하였다. 카르낙 신전의 기둥들은 찬탄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함과 정교함이 돋보였다. 거대한 신전의 모습 속에서 찾은 교훈은 인간의 교만함과 문화의 허망함이었다. 고라신은 룩소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과 책망이 머물렀던 곳이라 룩소의 카르낙 신전보다 더 애착이 간다면 빈 말일까?고대 고라신은 폐허가 되었지만 고대 고라신에서 북서쪽으로 2km쯤 떨어진 언덕에는 신 고라신이 있다. 이름대로 나무도 많고 꽃도 많은 아름다운 동네이다.

〈계속〉

서병길 교수
이스라엘선교회
캘리포니아신학교

필자와 함께 가는 영성순례
이스라엘-요르단
2017년 3월 15일~24일
***문의: 213-505-1583**
***이메일: iskms@hanmail.net**

2017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중고차 최고가 매입$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2017 CD PRINTING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패키지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시사 박성근

실버시티보험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메디케어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신규보험가입&변경기간 10월15일~12월7일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Part C)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커넥트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213-321-0302 Connie Kim(김 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팥찐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HOLLYWOOD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뱅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무료전화 1-877-580-2424 사우스베이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교회의 사회개혁 활동 (VIII)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초기 선교사들이 한글 전용을 추진한 결과 시골 아낙네들도 쉽게 한글을 깨우쳐 성경을 읽고 기독교 서적을 읽게 됨으로써 전도와 민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 견인차 역할을 했다. 초기 한국 교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한글을 읽을 수 있도록 계몽하였다. 따라서 서른 살 미만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세례를 받을 수 없었고,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한글을 깨우칠 때까지 역시 세례를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소수의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김구(金九)는 자기의 종형(從兄)이 낫놓고 기역자도 몰랐으나 자기를 따라 장연에 와서 예수를 믿은 뒤로는 국문에 능통하여 종교서적을 보고 강단에서 설교까지 하게 되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

초기 교회는 전도만 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지 아니하고 민족교화의 차원에서 한글교육에 열성을 다하였다. 따라서 "……[문맹자들에게] 교육을 주지 안코 전도만을 하겟다는 것은 무지의 큰 자이다. 앎이 업는 자에게는 암만 전도를 흔대야 소득은 기형아의 신자뿐일 것이다."라고 쓴 것에서 보는 것 같이 문자 해득 없이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것을 기형아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한글 보급에 전력하였다.

그리스도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제중원 의사 필 부인이 경기도 남부 죽산 둠벙이라는 곳에 가 보니 인가가 12호 있는데, 두 집 외에는 모두 믿는 자들로서 매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그 곳 여인들이 국문을 알지 못하는 자가 별로 없고 혹 국문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 남편이 가르쳐 준다고 하였다.

한글학자 최현배는 후에 "기독교가 한글에 끼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1. 한글을 민중 사이에 전파했다. 2. 신도들은 사상 표현의 말씨를 배우며, 글 읽고 글 쓰는 방법까지 깨치게 되었다. 3. 한글에 대한 존중심을 일으키고 한글을 지키는 마음을 길렀다. 4. 한글의 과학적 가치를 인정했다. 5. 배달의 말글을 널리 세계에 전파하였다. 6. '한글만 쓰기'(한글전용)의 기운을 조성하였다.

선교사들은 한글 공부에 절대 필요한 사전을 편찬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언더우드는 처음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사전이 없어서 큰 불편을 겪었던 것을 생각하고 5년간 노력으로 「한어자전」(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을 1890년 요코하마에서 간행하였다. 그가 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 겪은 최대의 어려움은 한글에 통일된 철자법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한글 통일 철자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1904년 9월에 모인 제4차 장로회공의회에서는 "國文(국문)을 사용하는 데 同一(동일)한 規模(규모)를 세우고, 今者(금자) 作定(작정)업시 各人(각인)의 心(심)대로 紊亂(문란)하게 사용하는 거슬 업시하고 始何(시하)케 하던지 容易(용이)한 法(법)으로 改正(개정)"하도록 결정하였다.

한국인들에 의해 천대받던 우리의 글을 선교사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폭넓게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글을 실용화하였다. 또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였고,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자각시키는 데 큰 몫을 감당하였다.

한글학자 최현배가 기독교가 한글을 전용하는 정책을 세운 결과에 대해 쓴 글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는 한글만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하여 그 교회가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한글이 전파되며, 한글이 전파되는 곳에 그 교리가 또한 전파되는 서로 인과하는 결과가 되었다. 민중 사이에 한글이 널리 전파되어 사회적으로 미천의 처지에 있던 서민 대중이, 새로운 교훈인 기독교의 성경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구원을 받는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유학자, 한학자들이 천시하던 한글을 깨치어, 처음으로 글눈을 뜨고서 지식과 교리에 점하는 신생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니, 여기에 비로소 어리석은 백성들이 날로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거룩한 뜻이 실현되게 된 것이다."

일제는 한국을 영구 식민지화하기 위해 초기부터 줄기차게 일본어 상용을 강조하면서 한글 사용을 억압하고 한글 말살 정책을 폈지만 한글 성경과 찬송가 사용만은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선교사들이 제기한 문제였고 세계적인 종교인 기독교를 탄압한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취해진 어쩔 수 없는 정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성경과 찬송을 통해서 한글을 유지했다는 또 다른 성과라고 하겠다. 한글전용 정책이 한국교회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는 선교사 게일이 언급한 것같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준비해 두신'(praeparatio evangelica) 귀한 선물이었다.

오늘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적은 이유는 두말 할 필요 없이 배우기 쉽고, 읽기 쉽고, 쓰기 쉬운 한글 덕이다. 그런데 이 귀한 한글을 일반화, 보편화, 대중화 하는데 초기 한국 교회가 이룬 공로는 그 어느 기관이나 집단보다 크다. 소위 식자층이라는 사대부들은 한문만을 숭상하고, 한글을 무시, 천대했지만, 선교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한자에 비해 쉬운 한글을 적극 보급함으로써 한글 일반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 공헌이야말로 한국 근대화에 초석이 된 요인 중 하나다. 따라서 선교사들의 한글 보편화 작업은 아무리 칭찬해도 과하지 않다.

은퇴자금에 대한 3가지 잘못된 생각

보 나 유
푸르덴셜 파이낸셜

은퇴 전략은 우리가 지금부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로드맵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맞는지 알려주고 틀린 선택을 할 때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돌려 줍니다. 은퇴 전략은 당신이 원할 때, 원하는 위치에 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략이 없으면 당신이 원하는 위치에 못 갈 수도 있고, 항상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더욱더 길고, 풍성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기 기대하십니까? 가족들을 방문하실 것입니까? 여행하실 것입니까? 봉사하실 것입니까? 가능성은 무한하지만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결정하신 후 다음 단계는 그 결정사항들이 재정적으로 무슨 뜻인지 밝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상상하신 삶을 경제적으로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부양가족이 계실 것입니까? 다른 비용은 얼마일지 예상됩니까?

우리가 답해야 할 많은 질문들의 일부밖에 안되지만, 이 질문들을 잘 대답한다고 해서 당신이 원하는 은퇴 생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은퇴에 대한 오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1. 은퇴 후의 낮은 비용

과거에는 퇴직 후 소득의 적당량은 퇴직 전 소득(세금 수입 후)의 50~80%로 제안됐었습니다. 하지만 모기지, 그리고 의료비용이나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고, 자유 시간이 늘면 상황에 따라서, 소비도 늘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퇴직 후 지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전략은 많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두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2. 나의 연금이면 충분

일반적으로, 퇴직 후 소득은 세 가지 원천이 있습니다. 정부 프로그램, 고용주가 후원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개인 저축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개인 저축이 은퇴 후 소득의 더욱 더 중요한 부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개인의 책임에 대한 대안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 소득이 높을수록, 소셜 시큐리티에서 받게 되는 연금은 퇴직 전 소득의 비율로 줍니다. 고용주가 후원하는 연금도 최근에는 면세 저축 계획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축 계획이랑 연금은 다릅니다. 연금은 보장되어 있지만, 저축 계획(예를 들면 401(k))은 주식 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오늘날 은퇴 적금 플랜들은 주로 직원들이 기여한 돈으로 이뤄집니다. 기여를 안 하거나 잘못된 투자를 하였을 때, 은퇴 후에 받게 되는 연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3. 나의 은퇴자금이 얼마나 오래갈 것인지 안다

평균 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당신이 일했던 기간보다 은퇴 후의 삶이 더 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은퇴 기간에 따라서 일을 하는 동안 저축금액도 달라집니다. 수명은 은퇴자금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초기 은퇴 저축금액이 $775,000이고, 매년 6%를 적립하면, 당신은 매년 약 $75,000을 15년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을 20년으로 예상할시, 초기 은퇴 저축금액이 $915,225이 필요합니다.

이런 오해들을 풀었다면, 이제 당신이 생각하는 은퇴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다시 계산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생각이 비슷하시다면, 당신이 필요한 자금과 지금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자금의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격차에 대한 선택은 이러합니다:

-은퇴 날짜를 연기한다
-은퇴 후 목표 소득을 감소한다
-저축을 증가한다
-투자 수익을 증가한다

신중하게 만들어진 은퇴전략은 이러한 변경들을 잘 통합할 수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는 당신에게 맞는 은퇴계획 시작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수년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Prudential Financial 그리고 Prudential의 재정 전문가들, 및 다른 직원들은 법률상담 또는 세금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금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296632-00001-00, Exp 09/21/2018
문의) 보나 유 213-885-1760

**푸르덴셜에서는 3월 18일(토) 얼바인의 엠버시 힐튼 호텔(2120 Main St. Irvine, CA 92614)에서 재산보존 상속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예약 문의는 310-755-9837.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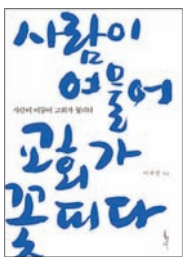
고백할 게 있습니다
애런 스턴 | 예수전도단 | 224쪽

가슴속에 묻어둔 채 고백하지 못한 '비밀'은 적극적·소극적인 죄, 은밀한 생각이나 느낌 등을 통해 순식간에 수치심과 공포, 가치관의 부재, 수많은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게 해 우리에게 해를 가한다. 저자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찾으면서, 자유로운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첫 걸음은 바로 비밀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
박성근 | 두란노 | 29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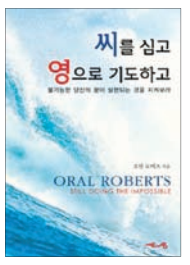
밤에서 아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려면 말씀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해답이라는 것. 이 책에서는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우리 영혼을 깨우는 박성근 목사의 설교를 통해 우리 마음에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위로와 감사와 도전을 전한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영혼의 밤, 그 요란한 것들 뒤에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

사람이 여물어 교회가 꽃피다
이국진 | 홍성사 | 192쪽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암울한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품고 묵묵히 여물어 가는 이들이 있다. 이 책은 소리 없이 여무는 그런 이들을 격려하는 따뜻한 시선과, 한국 교회의 어두운 단면을 파헤치는 예리한 시선이 맞닿아 있다. 작고 평범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저자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에서 옹골진 지혜와 깊이 있는 영성을 이끌어 낸다.

씨를 심고 영으로 기도하고
오랄 로버츠 | 서로사랑 | 332쪽



오랄 로버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50년 이상 전파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다. 로버츠 박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의 사랑과 돌봄의 개인적인 어루만짐이 있다. 그는 이 책에서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열 수 있는 감추어진 열쇠를 보여주고 있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인간관계 불편하다면… 자신의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

이 책의 저자는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출발점을 '잘못된 신념'에서 찾는다. 친구가 없어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 적극적이지 못하고, '자신은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둘째로,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야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할 때 자신은 버림받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질투와 시기심으로 힘든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뛰어나지 못하면 버려질 것'이라는 신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으므로 자신이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인해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신념이 주는 가장 큰 피해는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외부적 환경에 기인한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이 바뀌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저자는 위에서 언급한 관계의 고통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찰일지'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가 말하는 관찰일지란,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정서를 자신과 분리시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나 정서들이 왜 일어났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그러한 신념을 가지게 된 최초의 원인이나 사건이 무엇이고, 언제인지 등을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관찰하면서 기록해 나가는 것이다.

성경적 인간관계 세우기
윌리엄 베커스 | CLC | 264쪽

저자 윌리엄 베커스는 미국의 기독교 상담학자이다. 베커스는 기독교적 상담 기법, 정확하게 말해 심리적 문제들을 기독교 교리에 입각하여 풀어가고자 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대상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방법으로 대치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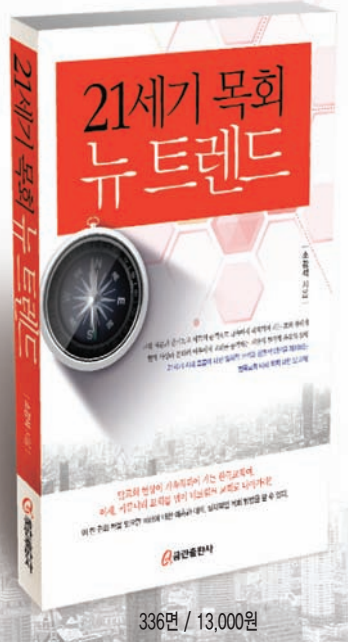
그러나 이것은 인식(신념)적 차원에 국한하여 조심하고 신중하게 취해야 할 방법이다. 심리적이고 현실적인 상처들을 무분별하게 예수님으로 대치시키고자 할 경우, 종교로의 회피와 도피, 잘못된 자기합리화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유념하면서 취해야 할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본서가 처음 출판된 것이 1988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일반 심리 상담과 성경적 상담을 접목해 기독교 상담이라는 것을 정립하려는 초기 기독교 상담서로서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본서는 관계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책이다. 시중에 '인지심리학' 서적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식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책들은 많지 않다. 본서의 장점은 실제 우리가 품고 있는 '신념'들을 묘사하고, 또 그 신념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도헌 목사(크리스찬북뉴스 운영자)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336면 / 13,000원

소강석 지음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다가오는 2017년을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와 함께 시작하세요!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천상병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정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거룩의 재발견
317면 / 13,000원

생명언어
317면 / 13,000원

안나가? 가나안!
240면 / 11,000원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라
256면 / 10,000원

쿰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qumran.co.kr
•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종교개혁파·새 관점 학파·김세윤 교수

‘칭의’에 대한 자기 이해를 제시한 노작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최갑종 교수의 〈칭의란 무엇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2016년, 한국교회에서는 칭의 이해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와 출판이 진행됐다. 2017년, 그 연구의 결실들이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흐름에, 최갑종 교수도 자기의 이해를 〈칭의란 무엇인가〉로 명확하게 제시했다. 학자가 자기 견해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독려할 일이며, 후학들도 이를 명료하게 인식하면서 자기 길을 정립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다. 한국교회 신학계에서 바울 이해에 큰 역할을 갖고 있는 최갑종 교수가 자기 견해를 명료하게 밝힌 것에 대해 독자로서 찬사를 보낸다.

세계교회는 이미 ‘탈 루터주의(Delutheranizing)’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한다. 1970년대 새 관점주의가 등장하면서 더욱 확실하게 정점을 찍고, 새로운 기독교로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아직까지 루터주의를 지키자는 견해와 수정, 보완하자는 견해 그리고 새롭게 하자는 견해 등이 공존한다. 필자는 새 관점 학파의 칭의 전개는 루터의 칭의론을 완전히 탈피한 것으로 생각한다.

최갑종 교수는 〈톰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와 김세윤 교수의 〈칭의와 성화〉를 적절하게 조화시킨 칭의 이해를 전개했다. 이를 매우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최갑종 교수가 이해하는 칭의 이해를 잘 탐구할 수 있다.

최갑종 교수는 자신의 저술 목적을 “한국교회가 겪는 칭의 이해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독자로서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신학 계보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다. 최 교수처럼 ‘두 견해를 잘 조화시킨 제언’으로는 혼란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저자의 의견이 명료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해할 수 있다. 최갑종 교수의 견해가 세계적이고 한국적인 결정은 아니며,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인지해서, 독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 있다.

최갑종 교수는 샌더스의 유대교적 재구성에 대해 부정적 자세를 제시하면서, 새 관점 학파 라인이 아님을 제시한다(53쪽). 그러나 바울의 다메섹 사건에 대해 복음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하지만, 이방 선교까지 연결하는 형태로 김세윤 교수와 동일한 견해를 피력한다(72쪽).

그러나 칭의의 법정적 성격에 대해서는 구원론(법정적), 교회론, 선교 등 모든 면에서 개방시킨다. 새 관점 학파의 견해까지 포용하는 것이다. 특히 그는 칭의의 근거에 매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을 만큼(95-168쪽), 이를 중요하게 배려하고 있다.

칭의란 무엇인가
최갑종 | 새물결플러스
296쪽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칭의의 근거로 삼는다. 새 관점과는 하나님의 단일 계획(single plan)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칭의의 수단으로는 ‘믿음’을 제시하는데, 믿음의 성격에 대해 기독론이 아닌 구원론을 제시하면서 모호한 어휘를 사용했다(204쪽).

김세윤 교수의 주제인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들이 분리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김세윤 교수의 주장(칭의와 성화는 동의어)을 반복한다. 전가 교리에 대해서는 법정적 이해가 아닌 연합 사상을 제시한다(253쪽).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을 달궜던 ‘영원한 칭의, 구원의 탈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세윤 교수의 주장을 반복한다.

최 교수의 견해 전체를 개략하면, 김세윤 교수의 사상을 중요하게 반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 관점 학파에서 주는 견해를 곳곳에 첨가해 자기 견해를 구축했다. 독자들이 김세윤 교수와 새 관점 학파의 견해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는 매우 유익한 정보이다.

그러나 김세윤 교수와 새 관점 학파, 종교개혁파의 칭의 이해 등이 명료하지 않다면, 최갑종 교수의 견해를 칭의 이해의 정점으로 삼고 다른 견해들을 비교할 수 있다. 최갑종 교수는 자기 견해를 명료하게 밝히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종교개혁의 칭의 이해도, 김세윤 교수의 칭의 이해도, 새 관점 학파의 칭의 이해도 아닌, 자기만의 칭의 이해를 구축했다. 그리고 학자가 명료하게 제시하는 견해가 한국교회에 세워지길 목표했다. 독자는 학자가 제시하는 견해를 바르게 습득하여 자신의 견해를 세울 수 있다.

독자는 칭의에 대해 자기 이해를 세우든, 최갑종 교수의 견해를 따르든, 종교개혁의 칭의 이해를 따르든, 김세윤 교수나 새 관점 학파의 견해를 따르면 된다. 종교개혁의 칭의 이해를 사랑하는 서평자로서, 독자의 자기 칭의 이해를 명료하게 세워주는 과정으로서 최갑종 교수의 칭의 이해 제시는 유익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자기 이해를 글로 명료하게 표현하는 훈련’이다.

최갑종 교수가 제시하는 주제를 따라 자기 이해를 글로 표현한다면, 지도자에 대한 좋은 이해가 될 것이다. 필자는 목사가 자기 이해를 글과 언어로 명료하게 표현해야 하고, 팔로워들은 그것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가 학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양심적이고 명료한 자기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다. 최갑종 교수는 자기 학문의 최정점에서 자기 과제를 한국교회를 위해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이 과업은 한국 신학의 자산이 된다.

고경태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위원
주님의교회 담임

저자 최갑종 교수 · 현 백석대 총장

종교개혁 500주년 기독교 역사에 관심 가져라

종교개혁의 뿌리를 찾아서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생애와 사상
김명수 | 그리심 | 244쪽

여러모로 올해는 종교개혁의 의미와 종교개혁자들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통해 오늘의 개신교와 그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각 출판사들마다 종교개혁과 종교개혁자들의 책들을 내놓고 있다.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 데벤터에서 데보치오 모데르나 즉, 기독교 르네상스의 토양에서 성장했다. 그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부터 복음주의 가치관과 기독교 인문주의의 기초를 형성했다. 그는 인문주의의 대가 아그리콜라(1444-1485)의 강의를 듣고 인문학과 라틴 고전에 대한 강렬한 충동을 받게 됐으며, 기독교 인문주의 학자로 변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그의 나이 34세에 면죄부 판매와 교황권 남용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95항목의 논제들을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정문에 내걸었다. 이것이 16세기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고, 전 유럽을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게 했으며, 세계 역사에 중대한 획을 긋게 되었다.

본서는 기독교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와 종교개혁자 루터에 관해 요약과 정리를 해 주고 있다. 두 인물의 주요한 역사적 사건과 그들이 영향을 받은 책들과 사상가들, 그리고 그들이 출판한 주요 책들과 논문들에 대한 핵심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두 인물의 업적을 과장하거나 치켜세우지 않고, 담담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시대를 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점을 알려 주고 싶어하는 듯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역사(한국사)’ 교육이 중요한 이슈가 된 시점에 있다. 바른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의 역사, 신앙의 역사의 중요성에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중요성에 동의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구약을 제외하더라도,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 넘는다. 그러나 교회에서 체계적인 교회의 역사를 교육하는 곳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맛 잃은 소금이 된 여러 중요 원인들 중 하나가 바로 역사에 대한 무지 때문은 아닐까?

물론 교회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알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건들과 사상들과 사상가들을 만나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고대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종교개혁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으며, 종교개혁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고, 종교개혁이 이룬 성과와 종교개혁이 남긴 숙제 등에 대해 우리는 진지한 마음과 태도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을 공부하거나 이해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신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역사적 접근, 인물적 접근 등이다.

본서는 그 중에서 인물적 접근으로 에라스무스와 루터를 소개하고 있다. 앞서 밝힌 것처럼 이 두 사람은 모두 당시 로마가톨릭교회의 개혁을 외쳤지만, 한 사람은 로마 교회에 남아 개혁하기를 원했고, 한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통해 개혁을 추진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 이상으로 문란해진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끔 한다.

강도헌 목사(크리스찬북뉴스 운영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March 2, 2017 Vol. 91

Four parents shared about their experiences of parent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t a seminar which took place at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on February 26. (From left to right: Brian Kim, Lisa Park, Jamie Lee, Elizabeth Smith, and Susanna Nam)

'God Was There Every Step of the Way'

Four parent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share spiritual journeys

BY RACHAEL LEE

Undoubtedly, being a parent of a child with special needs comes with unique challenges. But for four parents, the journey of parenti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has also been filled with testimonies of new discoveries and understandings of God and the gospel.

These parents shared their stories at a seminar called, "The Road Less Traveled," hosted by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CCSC) on Sunday.

The panel of four parents shared openly about various struggles they have faced throughout their children's lives. Some shared the shock they felt when discovering that their child has, or would have, a disability, as well as the confusing dichotomy of feeling like there is a wealth of resources, yet not any specifically helpful to their children. They shared the sadness they feel as their children may not be able to enjoy the activities that other children do. They shared the feelings of inadequacy and failure they struggle with frequently – "going at a 110 percent and still feeling like we're failing," in the words of Jamie Lee, whose four-year-old son Shane has Down syndrome. Some shared the amount of specialized care and extra therapy that their children need due to their disabilities. Still others shared the concern and uncertainty they feel for their children who may fall or get injured at any moment.

But in the midst of those challenges, these parents also had defining moments of recommitment to God, rediscovery of God's love, and deeper understanding of the gospel.

For instance, when Jamie Lee and her husband Andrew learned during pregnancy that their son would be born with Down syndrome, there was a sense of expectation from others that they should terminate the pregnancy, she recalled. Yet that became an opportunity for them to place their faith in God.

"We had to go back to the gospel and see what is true," Lee said. Though the couple was faced with a challenge completely unfamiliar to them, they had "great confidence in the God who does know all things," she added.

Lisa Park, whose eight-year-old son Desmond has autism, shared that for a period during her parenting journey, she struggled with depression.

"It was a battle of being that supermom and thinking that I had to do everything and it still wasn't enough," said Park. "It made me realize what the gospel meant – that I'm truly insufficient."

For Brian Kim, the journey of parenting has been one of witnessing God's faithfulness, he said. Kim's 14-year-old son David has a physical disability due to complications he had at two years old, when he had a seizure and a stroke that led to a coma, and the right hemisphere of his brain was severely damaged as a result. After he woke up from the coma about three months later, he was paralyzed throughout the left side of his body. Though the doctors at the time said that he may not be able to walk or talk, today, David can walk with a cane, and "talks to the point that he can be a chatterbox," Kim said.

"In hindsight, God was there every step of the way, every time we faced uncertainty," he recalled. "We didn't know what to do or how to prepare ourselves, but God was there for our family."

Elizabeth Smith, whose 12-year-old son Ian also has autism, shared that her parenting journey has been for her one of discovering God's love in new ways.

"I've learned so much about God's love and who He is because of Ian," she said, "and the journey hasn't ended – it's an ongoing process."

Harold Kim, senior pastor of CCSC who shared remarks in the beginning of the seminar, said that though not everyone may have a disability, for every Christian, "God has placed some kind of wound or weakness" that other people may not notice, but "you see it, feel it, and it has profound effects."

"Most attractive for Christ Central and every church is not my strength, most relatable is not my strength – it's our weakness," Kim went on. "Perhaps the greatest gospel qualification is not how strong you are, but let's look at how weak you are. How have you suffered? Have you suffered well? Has God shown his strength in your weakness?"

"David defeated Goliath not in spite of his weakness," Kim added, "but because of his weakness."

From Mother to Daughter, Church to Child, Instilling 'Godfidence' in Girls

BY RACHAEL LEE

After several years of doing parent-child events for the girls and boys of the children's ministry, this year,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hosted an event for girls in kindergarten through 6th grade and their mothers, called "Love You to Pieces."

For this year, the church hoped to instill in the girls the confidence that comes from the gospel, Living Hope's children's ministry director Min Song Lee explained.

"In Colossians 2:17, it says that Jesus holds us together, and I do think that while it refers to the whole body of Christ as the church, it also means that he holds our lives as broken people individually," said Lee.

"There is beauty in the brokenness and the mess, and Jesus has the power to piece it all together and bring it back into the form it was intended to be."

"As these girls are going through doubts about who they are, I thought it would be helpful to remind them that those are valid feelings, and definite struggles, even though they're young, and that Jesus is the glue that holds us together."

About 130 mothers, daughters, and church staff and volunteers attended the event, which took place on February 19. The mothers and daughters had dinner together, listened to a guest speaker who spoke on identity in Christ, and heard the testimony of a fellow mother. Then, daughters participated in a painting activity while mothers wrote letters to their daughters in a separate room on what it means for women to be used by God and to be "put together" by Him. The event came to an emotional close as mothers and daughters prayed together at the end.

"Our hope was that the girls would have 'Godfidence' as they walked out of the event," Lee said.

The term 'Godfidence' refers to the idea that while self-confidence is earned through the work in this world, "Godfidence is grace – the work has been completed by Jesus," explained Lee.

Living Hope has been hosting such parent-child events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o foster more partnership between the children's ministry and parents.

Over 100 mothers, daughters, and church staff and volunteers attended Living Hope's 'Love You to Pieces' event on February 19. (Photos: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Greg Laurie, Franklin Graham, and Two Dozen Other Leaders Encourage Christians to Make 2017 'The Year of Good News'

A group of more than two dozen Christian leaders signed a letter published on Tuesday enumerating the need for Christians to make the year of 2017 the "Year of Good News," and encouraging them to share the gospel.

"In a time of fake news, distracting news, divisive news, disorderly news, and, sometimes, depressing news, we — as Christians and as leaders — want to recommit ourselves to making sure that the Good News of Jesus cuts through it all," the letter states. "We call upon Christians in America to make 2017 'The Year of Good News.'"

The letter, which was written by Greg Laurie of the Harvest Crusades, was signed by leaders such as Al Mohler of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ranklin Graham of the 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author Max Lucado, Russell Moore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s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and Samuel Rodriguez of the National Hispanic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among others.

"We need a national miracle to heal our political, racial, and cultural divisions, and that miracle is found in the power of Jesus to change our hearts," the letter continues.

"Therefore, we commit to preach louder than our nation's politics, and we aim to make the message of Jesus Christ transcend the monopoly of our media. We confess our only hope of unity is on the level ground at the foot of the cross of Jesus, and our only hope of healing is in the victory achieved through His empty tomb."

Through the letter, Laurie also calls on Christians to share the gospel with "everyone they can at every opportunity they can," and on pastors to "preach the Gospel boldly and pray intentionally for revival."

The letter is open for signature to the public, and the leaders have urged Christians to use the #YearofGoodNews on social media.

"Share this with your friends and let's make Good News go viral," wrote Franklin Graham in a Facebook post in which he shared the letter.

Tim Keller Will No Longer Serve as Redeemer's Senior Pastor Come This Summer

Tim Keller announced on February 26 that he will be stepping down from his senior pastoral position at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Renowned author and pastor Tim Keller of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will no longer be serving as the senior pastor of the New York City church starting this summer, Keller announced on Sunday.

In a written statement posted on the church website, Keller shared that he will be serving full-time through the Redeemer City to City ministry "to teach and train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and pastors who will accelerate a movement of church planting and gospel renewal for the good of the city."

He also shared that the church will transition from being a three-campus multisite church, to three separate, independent churches with their own senior pastors and elder boards.

"The mission of Redeemer has always been to be a church that serves the city," said Keller in the statement. "Starting July 1, we will embody that mission in a new form by actualizing our long-stated plan of shifting from being a single large church with multiple congregations to becoming a family of smaller churches."

Of his new full-time position at Redeemer City to City, Keller said: "Through the Rise Campaign we embarked on together last year, we laid out a strategy of hundreds of churches from various denominations starting over the next ten years — churches that exist not for themselves but for the city. I am honored to take my place in that strategy as a teacher and trainer, while also continuing to have a presence and teaching role in the three Redeemer churches."

"The gospel is a living force, always sending and giving — and as I am sent in a new way now, so is every member of Redeemer, to love and serve this great city," Keller added.

Bethany Jenkins, a member of Redeemer and director of the Faith & Work Initiative of The Gospel Coalition, shared the news on Sunday through Twitter: "Big day for @RedeemerNYC, as @timkellernyc announced he's stepping down as senior pastor as of July 1."

Keller also responded to tweets regarding his transition. One Twitter user asked, "@timkellernyc, now that the pulpit of @RedeemerNYC is gone will @RedeemerCTC have more or less of you?"

"I'll have more time for many different endeavors including @RedeemerCTC," Keller responded, referring to the City to City ministry.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Trump Administration Reverses Obama-Era Transgender Bathroom Directive

In a letter jointly signed by the Education and Justice Departments on February 22, the Trump administration rescinded a directive given to public schools during the Obama era to allow students to use sex-segregated facilities according to their gender identity.

The Obama administration issued the directive in 2016, saying that the non-discrimination clauses in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protect students from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which they interpreted to include gender identity.

The Trump administration said in the letter that the directive does not "contain extensive legal analysis or explain how the position is consistent with the express language of Title IX, nor did they undergo any formal public process."

The letter goes on to say that the administration decided to rescind the directive "in order to further and more completely consider the legal issues involved. The Departments [of Justice and of Education] thus will not rely on the views expressed within them."

Though the Obama-era directive did not add any additional rules or regulations, it sparked much debate as activists on both sides of the aisle marked its significance. LGBT activists argued that the directive gave further protections for transgender students, while conservatives argued that it was an overreach in interpreting the law and violated the privacy of students.

"Trump's actions do not change the law itself — transgender students remain protected by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 but abandoning the guidance intentionally creates confusion about what federal law requires," said Rachel B. Tiven, CEO of Lambda Legal.

"This move is good for parents and good for families," said Russell Moore, the president of the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Children are not pawns of the state to be used to advance the latest fashionable 'right side of history' cause. Christians must continue to insist that the worldview of the sexual revolution harms men and women and advocate for the inherent dignity of all."

After the Obama administration directive was issued in May 2016, a dozen states sued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a Texas judge temporarily blocked the directive from taking effect in August.

However, a federal appeals court referred to the Obama administration's bathroom directive when ruling in favor of a teenager who sued a school district for prohibiting the use of restrooms according to gender identity. Oral arguments regarding this case involving teenager Gavin Grimm are scheduled to be heard by the Supreme Court on March 28. The newly issued letter by the Trump administration may affect the high court's decision on the case.

Montana Senate Passes Unprecedented Bill Restricting Abortion Even in Case of Emergency

The Montana state Senate passed a bill that would require doctors who terminate a pregnancy after 24 weeks for medical emergencies to try to do so by inducing labor or cesarean section, and then to try to give life support to the baby.

Abortion is already banned in the state, but the current state law makes exceptions to save the mother's life during late-term pregnancy. The bill would make that current law even more restrictive to effectively ban abortions all together by requiring the doctors to try keeping the baby alive.

Those who violate the measure would be charged with felony.

Most say the bill is unlikely to become law, as Montana Governor Steve Bullock has expressed support for abortion and will likely veto the measure. The Senate, which voted 32-18 in support of the bill on February 23, failed to gather two-thirds of the votes in favor of the bill to be able to override a possible veto.

Senator Albert Olszewski, who is the bill's primary sponsor, said the bill was "inspired by a real situation, a situation where a late-term pregnancy put a woman in a life-threatening condition and had to deal with this horrible decision of being told she had to terminate this pregnancy."

The Montana state capitol pictured in 2012. The Montana state Senate passed a bill that would place more restrictive measures to the current state abortion law. (Photo: Tracey Elizabeth / CC)

The bill offers "two methods of terminating a pregnancy," Olszewski said, and "both would produce a live birth and it's safe for the mother."

Critics of the bill, such as Senator Diane Sands, say it's too extreme.

"They either have to be a miracle worker or a felon," Sands was quoted by the Chicago Tribune as saying. "It's by far the most extreme measure I've seen ever proposed in Montana."

Planned Parenthood Montana has stated that it would challenge the bill in court if it becomes law.

Egypt's Coptic Christians Flee Their Homes to Escape Violence in Sinai Peninsula

More than 100 Coptic Christian families have fled their homes in the Sinai Peninsula in Egypt due to rising levels of violence against the religious group in recent months, according to media reports.

In just the past month alone, seven Coptic Christians have been killed in the Sinai Peninsula, including the most recent February 23 incident of a man who was shot and killed in front of his wife and family.

In December, more than 25 were killed at a suicide bombing incident at a major Coptic cathedral in Cairo.

Though no one has taken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s, most believe they were carried out by the Sinai Province branch of the Islamic State, known as the Wilayat Sinai.

The Wilayat Sinai published a video online on February 19 threatening to kill all Christians in the region.

"There will be more operations in the near future, if God wills it, as you are our first target and our preferred target in our war," the video states.

"You followers of the Cross, you traitors of all ties — know that warriors of the Islamic State are watching you, and our blessed invasion won't be our last on you. Because what's coming is worse and hotter than boiling oil, so wait and see, we will be victorious," it continues.

Egyptian media and the Christian community in Egypt estimate that about 118 Coptic Christian families have fled their homes in Al-Arish, located in the Sinai Peninsula.

Most of these internally displaced families have taken shelter in Ismailia province, according to Egyptian media, and are being provided with housing and resources from the government.

Some are staying in private residences and churches.

"They're exhausted, with urgent needs for food and children's clothing," Nabil Shukrallah of the Evangelical Church, told the Associated Press. "They're terrified of the violence and brutality."

Some 5 Million in South Sudan May Face Food Shortages Without Added Aid, Humanitarians Say

Humanitarian agencies are urg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help provide food and resources in South Sudan, saying that as many as 5 million people will face extreme food shortages by the summer if agencies and governments do not act.

According to an update on February 20 from the agencies, more than 40 percent of South Sudan's population are "urgently" in need of food.

"More than one million children are currently estimated to be acutely malnourished across South Sudan; over a quarter of a million children are already severely malnourished. If we do not reach these children with urgent aid many of them will die," said Jeremy Hopkins, a UNICEF Representative in South Sudan, in a joint statement released by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and the World Food Programme (WFP).

"We urge all parties to allow humanitarian organizations unrestricted access to the affected populations, so we can assist the most vulnerable and prevent yet another humanitarian catastrophe," Hopkins added.

The agencies also said that the food shortage crisis is "man-made," and is the result of years of conflict and violence in the country.

"It has not been sudden," George Fomiyen, a spokesman of the FAO at Juba, told CNN. "Food insecurity, hunger, malnutrition has been getting steadily worse since the conflict started three years ago."

Humanitarian agencies are asking governments and donors for added efforts to help alleviate the crisis. Fomiyen told CNN that the FAO must secure more funds within the next six months to provide the resources needed in the country.

Perry Mansfield, the national director of World Vision which is partnering with the FAO to provide food in South Sudan, said that "if aid, funding and deliveries are not immediately scaled up we should expect to see children facing starvation."

"The rainy season is only weeks away and once that arrives the roads become impassable, meaning that millions of people will be cut off from aid," Mansfield said. "We have a small and rapidly closing window of opportunity to get food into these remote areas, to preposition it, before it is too late."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활성산소 제거?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환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래디컬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본 수소수기의 특징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카리 상태가 됩니다.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첨단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높은 용존 수소량 · 가정용 수소수기 · 강력한 환원능력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가주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수소 보틀(1병) 구입시
에네스티 핸드크림 2개 Free
(12불 상당 사은품)
공짜

수소수 무료 시음!
깨끗하고 건강한 물 드시러 오세요.
한국의 코정아쿠아 PLUS 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CTP 100
$1,3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정수기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GSPH 100
$2,9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수소수기

▪환원력이 뛰어난 수소가 생성되는 보틀

[제품특징]
*스테인레스 필터를 통해 잎차, 티백, 천연차 등 다양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적정사용온도 : 친환경소재와 제품 변형 방지를 위해 -20도~100도 사이에서 사용을 권합니다.
*심플한 디자인, 친환경 트라이탄 소재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휴대성으로 여행, 스포츠, 레저 등은 물론 일상에서도 편리합니다.

1병 ~~$95.00~~ $65.00 +TAX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BAJA CALIFORNIA NATURAL SEA SA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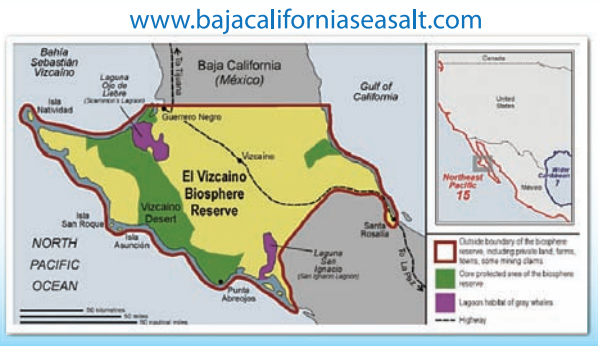
세계 최대 규모의 천일염 생산지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의 특징
- 최적의 생산조건에서 생성된 순도 99.70%의 미네랄소금
- 중금속 0.001% 청정 천일염
- 간수 제거된 건강 천일염
- 다년간 생산과정을 거친 최상급 천일염
- KA-Kosher 인증 천일염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염전의 특징
- 청정해역에 위치한 깨끗한 구역
- 적은 강수량 (50mm/년)
- 강한 일조량 (2M/년)
- 년 평균 기온 (18~22°C)
- 강한 바람

www.bajacaliforniaseasalt.com



UNESCO's El Vizcaino Biosphere Reserve

성분분석 및 인증서
바하캘리포니아 천일염은 기존의 호주 수입 천일염 및 국내 천일염과 비교하여 천일염의 기능과 소비자의 선호도 또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 1봉지

건강한 피부의 시작
에네스티 화장품
enesti

이제 물에서도 당당하게!

Enesti UV CUT SUN BLOCK
에네스티 유브이 컷 썬블럭
워터 프루프/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
SPF 50+ PA+++ (40ml)
$8.00 + tax

PROTECTION FROM UVA, UVB WATERPROOF ANTI-SHINE EMULSION
Enesti 샤르르~ 시어버터 촉촉 매끈 핸드크림
초고보습 시어버터 함유 Softening and moisturizing
Net wt. 50g
$6.00 + tax

구입문의 213. 434. 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10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